

구원

빛과 생명 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조동호 목사

이 글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근원(근거)도, 수단(방법)도, 내용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그 은혜에는 체계 곧 구원의 과정이 담겨 있다.¹⁾ 그 과정에 대한 중요한 견해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구원의 의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비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지상 가나안땅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그 땅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낙원, 에덴동산, 새 하늘과 새 땅, 엘뤼시온(샬렐리제), 도솔천, 용화세계, 유토피아, 무릉도원, 아르카디아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실제로 가나안땅의 상당부분은 척박한 광야 곧 사막이나 다름없는 땅이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떠돌이였고 노예였다. 따라서 땅은 그들이 수천 년간 꿈꿔왔던 '하티크바'(Ha-Tikvah, '그 희망')였고, '올람하바'(Olam Ha-Ba, '다가올 세상')였다. 이 땅을 처음 희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꿈은 최소 430년(최고 645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뤄졌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야훼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와 떠돌이였던 소수민족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들어설 땅을 차지한 성공스토리이다. 그리고 그 땅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 최고 684년(1446BC-40년-722BC=684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시리아에 넘어갔고, 남왕국 유다의 경우, 최고 820년(1446BC-40년-586BC=684년)을 넘기지 못하고 바빌로니아에 넘어갔다. 그리고 주후 70년까지 유다 마카비가 이끈 유다-헬라 전투(167-164BC)의 승리로 단 한번 100년간 부분적으로 주권을 회복하였으나 총 556년(586BC-100년+AD70)간을 여러 제국들의 속주(Provincia) 백성으로 살아야했으며, 두 세 차례에 걸친 유다-로마전쟁의 패배로 주후 1948년 5월 14일 극적인 국가재건 때까지 최고 1878년간(AD1948-AD70) 최소 1813년간(AD1948-AD135) 속주의 권리마저 상실했고, 그로써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져버린, 그래서 땅이 없는 떠돌이 소수민족으로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야했다. 이 긴 2534년간(586BC부터 AD1948까지) 주권이 없거나 땅이 없는 상태로 살아온 유대인들이 꿈꾸고 희망했던 나라,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희망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이 바로 '올람하바'(Olam Ha-Ba) 곧 '다가올 세상'이다. 참고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올람하바'를 지상이 아닌 하늘 가나안땅(천국)으로 보았다.

유대교인들은 토라를 엄격히 준수해야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다. 유대교 신비주의자 카발라인들은 '감춰진 일자' 곧 '아인 소

1) 잭 코츠렐, <성서의 은총론>, 정남수 옮김(서울: 쿰란출판사, 2012), 47.

프' (En Sof)이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발산)된 열 가지 '세피루트' (Sefirot)이 있었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 카드몬(Adam Kadmon)이 이 세피루트 곧 하나님의 형상, 속성, 쉘키나(Shekhinah), 계시의 빛이라 말할 수 있는 열 개의 세피루트를 담은 그릇이었다고 말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이 열 개의 세피루트를 아담과 이브가 갖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 세피루트의 상위 세 개 곧 왕관(Keter 케테르, 아담?), 지혜(Chokhmah, 호크마, 이브?), 이해(Binah, 비나)는 부분적으로 깨졌고, 나머지 일곱 개 곧 사랑(Chesed, 헤세드), 능력(Geburah, 게브라), 영광(Tiferet, 티페레트), 승리(Netzach, 네짜흐), 존귀(Hod, 호드), 기초(Yesod, 예소드) 그리고 나라(Malkut, 말쿠트)는 완전히 깨져 버렸다고 말한다(대상 29:11). 유대인들은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일, 특히 마지막 열 번째인 나라(Malkut)를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책무를 완수하여 세피루트 곧 하나님의 형상, 속성, 쉘키나, 계시의 빛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²⁾

유대인들의 땅에 대한 절박함은 율법준수의 엄격함으로 발전되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지 50일째 되는 첫 오순절 날 시내 산기슭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고, 계명이며, 토라(Torah)이다. 첫 오순절 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십계명이었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다. 그 후 하나님의 계명은 총 613개로 늘어났고, 늘어난 계명의 상당 부분이 땅과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게다가 후대의 랍비들은 수많은 율타리법들(Gezairoth)을 만들어 사람들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타리법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 골자였지만(마 22:40), 땅을 지켜내고자 한 저들의 절박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가나안땅이 보존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충실히 지켜내느냐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예언자들의 냉정한 판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배신한데 따른 응보(Nemesis) 혹은 사랑의 매였다.

유대교인들에게는 수난자 인자 메시아 개념이 없다. 유대인들은 '인자'가 민중의 슬픔과 수고와 고통에 마침표를 찍고, 그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안겨줄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수난자 인자란 개념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유대인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Moshiach) 인자가 굴욕과 수난과 죽음을 당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그가 세상을 심판해야 할 권능과 영광의 메시아 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심판주 메시아 인자사상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재림주 메시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없는 그리스도교만의 특징은 수난자 인자 메시아 개념인 셈이다.

유대교인들에게는 영혼구원사상이 없다. '수난자 인자' 사상에서 나온 것이 그리스도교의 영혼구원사상이다. 이 영혼구원사상은 현재구원 혹은 실현된 종말

2) <https://www.jewfaq.org/kabbalah.htm>.

(realized eschatology)로써 미래구원 혹은 미래종말(futuristic eschatology)을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 이 땅의 삶 속에서 약속받고, 인침(직인)받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사상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의 인자’ 사상만 있는데, 이것은 육체구원, 이스라엘 민족구원, 이스라엘 나라 회복 사상으로써 아직 이뤄진 일이 없는 미래구원을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상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실현된 종말을 주장한다고 해서 미래종말이 없지 않듯이, 유대교가 미래종말을 주장한다고 해서 실현된 종말이 전혀 없지 않다고 주장한 유대교 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20세기 전반기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 연구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와 벨라루스 태생의 미국인 사회 철학자요 종교 사회학자이며 유대교 신학자였던 윌 헤르베르그(Will Herberg, 1901-1977)이다. 마르틴 부버는 <두 형태의 신앙>(The Two Types of Faith)이란 책에서 “구약의 신앙과 성경 이후 유대교의 살아있는 믿음은, 비록 다른 주제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바울뿐 아니라 산상수훈을 남긴 예수도 반대한다.”³⁾는 입장을 취한 한편, 1917년에 쓴 “Der Preis”(The Price)이란 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지 않는 자, 스스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⁴⁾고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윌 헤르베르그는 마르틴 부버의 저술들을 선별하여 편집한 책에 쓴 긴 서문에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return)을 갈망하고 있고, 신약성경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는 강렬한 미래종말의 구호로 끝을 맺고 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거룩한 백성(나라)으로 구성된 한 위대하고 독특한 구속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확증해야 한다.”⁵⁾고 말함으로써 유대교에도 실현된 종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대교의 종말론이 항상 이 지상의 땅에 국한되는 반면,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은 이 땅과 내세 모두에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쓴 엘리트들은 제2모세 곧 메시아가 와서 세울 ‘다가올 세상’(Olam Ha-Ba) 곧 미래종말을 ‘희망’(Ha-Tikvah)하며, 그 때까지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 이스라엘인지,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를 물었고 해답을 제시하였다. 그 해답은 유대민족혈통이 참 이스라엘이고, 토라를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신앙을 간직한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이며,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서 제국들의 속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유대민족혈통과 유대교신앙이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한 것이 아니고, 유대민족혈통이 보존되는 한 참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것이며, 토라를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신앙

3) Martin Buber, *The Two Types of Faith*, Norman P. Goldhawk, trans.(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1), 55.

4) Martin Buber, "Der Preis," *Der Jude*, October 1917.

5) Will Herberg, ed., *The Writings of Martin Buber*(Cleveland and New York: Meridian Books, 1956), 31.

이 유지되는 한 참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이 역대기 역사관을 가지고 미래종말에 주어질 ‘그 희망’을 현재의 삶 속으로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며 현실화시키고자한다는 점에서는 유대교에도 일정부분 실현된 종말론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교회를 실현된 메시아의 나라로 확신하는 영적구원 곧 현재구원과 같은 현재종말론이 유대교에는 없다. 유대교인들은 “메시아가 오고 계시다”(Moshiach is coming)고 말할 뿐이다.⁶⁾

유대교인들에게는 영적구원(현재구원)이 없고, 육적구원(미래구원)만 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구원과 재림 때에 육적구원의 완성이 이뤄질 것을 말하는데, 부버와 헤르베르그는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大)구원이 이뤄졌고, 제2의 출애굽사건을 주도할 메시아(Moshiach)가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스도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미 실현된 구원의 확신, 곧 종말에 주어질 축복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반면, 유대교에는 그것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유대교인의 ‘이미’는 2600(586BC)여 년 전에 실패로 끝났으므로 그 실패를 만회하거나 보다는 큰 축복이 주어질 미래만 희망(Ha-Tikvah)하고 사는 것이다. 이점이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또 한 가지 다른 점이다. 다만 그리스도교나 유대교가 모두 미래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믿고 희망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미’란 것은 메시아가 가져오실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아직’이라는 말은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소망 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세적이면서 미래적이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종말에 주어질 축복된 삶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복된 삶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침례 가운데서 선행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되고 인(印)쳐진 삶이다.

유대교인들은 2600여 년 전부터 두 가지를 희망하고 있었다. 첫 번째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메시아가 가져올 ‘올람 하바’(Olam Ha-Ba)이다. ‘올람 하바’란 ‘메시아 시대’ 혹은 ‘다가올 세계’(World to Come)를 뜻한다. 이 ‘올람 하바’ 곧 ‘다가올 메시아 세계’는 흔히 말하는 ‘종말시대’ 또는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다가올 마지막 세계’가 2천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

6) 유대교인들은 ‘메시아’(Messiah)란 호칭이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대신에 ‘모쉬아크’(Moshiach)란 호칭을 사용한다. 유대교인들은 ‘모쉬아크’가 곧 오실 것이고, 오고 계시며(Moshiach is coming!),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령님의 활동은 다가올 마지막 세계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올람 하바’ 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성령님의 ‘중생과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올람 하바’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여년간 애타게 희망했던 그 마지막 세계 혹은 종말시대가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라는 새 언약 공동체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영적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시대를 교회시대 혹은 성령시대라고 부른다. 또 이 시대를 다른 말로는 시작된 종말시대 또는 실현된 종말시대라고 부른다.

시작된 종말이나 실현된 종말이란 말은 영적인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종말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말, 혹은 ‘칭의’나 ‘중생’이란 말은 종말이 완성되는 때에 주어질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성령님으로 보증 받고, 인(印)침 받고, 그 축복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변호하심과 치료하심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대표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이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 평화가 있는 곳에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끝’과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뤄진다. 하나님의 구원(몸의 부활)의 약속이 이뤄지는 시점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하였으며, 26절에서는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고 했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유대교인들에게는 없다. 그들에게는 시작된 영적 종말이나 실현된 영적 종말의 축복이 없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그 희망’ 뿐이고, 성령님으로 보증 받고, 인침 받고, 그 축복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변호하심과 치료하심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 없다. 유대교인들에게 시작된 영적 종말의 축복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다가올 시대’란 그들 민족만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올람 하바’는 유대인의 제2의 출애굽 사건, 곧 유대인의 대 구원 사건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 육적인 사건이다. 문자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었는데, 건국된 지 70여년이 넘었어도 다윗 왕국이 회복되었다고 믿는 유대인은 없다. 아직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계를 통합할만한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세워진 이슬람의 황금돔사원(Dome of the Rock)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영적으로 하늘 가나안땅에서 누리는 참 안식이다. 그 땅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에덴동산, 낙원, 엘뤼시온(상젤리제), 도솔천, 새 하늘과 새 땅, 용화세계, 유토피아, 무릉도원, 아르카디아와 같은 곳이다. 그렇다고 현실 세계를 포기하거나 절망적으로 살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을 말세론 또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왜곡한 데서 비롯된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붙이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인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의하고 불평등한 인간의 나라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도록 하신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종국적이고 영원한 삶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 ‘장차올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추구하는 ‘장차올 더 좋은 것’은 영원하고 참되며 세계적인 것인데 반해, 유대교인들이 희망하는 ‘올람하바’ (다가올 세계)는 현세적이고 일시적이며 민족적인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차이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 (히 6:9), ‘좋은 소망’ (히 7:19), ‘더 좋은 언약’ (히 7:22), ‘더 좋은 약속’ (히 8:6), ‘장차 나타날 좋은 것’ (히 10:1)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히브리인들도 ‘더 좋은 것을 사모’ 하였지만, 그것은 지상의 것이었지, 영원한 하늘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세우신 ‘더 좋은 계획’에 따라(히 11:40)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자들을 위한 ‘한 도시’ 곧 하늘 가나안땅에 새 예루살렘을 마련해 놓으셨다(히 11:16)고 밝혔다.

바울도 ‘장차올 좋은 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였다(엡 1:21).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는 말씀이 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장차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으로써”(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성령님은 ‘장차올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의 ‘보증금’과 ‘인감(印鑑)’으로써 설명되었다. 광야사막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확실하게 인도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어떤 히브리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교회에 율법과 복음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히브리파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중대한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권위와 이방인교회들에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이에 안디옥교회는 시비를 갈려줄 예루살렘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보고도할 겸,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까지 15일 정도 걸리는 먼 길(480KM)을 여행하는 동안, 교회들을 방문하여 이방인 선교결과를 전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행 15:4) 보고하였다. 이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 15:5)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오랜 시간 토론하였다.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였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wir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행 15:7-11)고 호의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 선교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말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일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가 문의 개종자들에게 요구하는 노아의 법들을 지키도록 권하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행 15:20)는 말로 회의를 종결시켰다.

이때가 예루살렘교회가 세워지고 20여년이 지난 주후 50년경이었다. 교회의 승인을 가진 사도들이 그리스도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오픈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줌으로써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선교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힘입어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과 같은 복음의 정수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옛 언약의 율법은 지상 가나안땅의 보존에 필요하고, 할례는 그 가나안땅 약속에 대한 증표에 유효하지만, 즉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땅을 약속받고 그 효력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치 않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삶과 윤리적 삶에 도움이 되지만, 하늘 가나안땅에 들어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민족성별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으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가족의 식구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교 복음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던 것들이다(엡 3:1-5). 다만 그 복음을 전한 방법에 있어서는 이전 것들을 재창조한 면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 예비온파들(Ebionites)은, 그들이 비록 한 분 하나님 야훼만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도님의 신성을 부정하였지만, 예수님이 이전의 토라 곧 율법을 새로운 의미, 참된 의미, 본래적 의미를 밝힌 분이라고 믿었던 것과 같다.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율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율법의 본래적이고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의 저자들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전하지 않고, 이전의 것, 옛 것, 구약을 재해석함으로써 옛 것의 본래적이고 참된 의미를 밝혀 주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심과 부활승천하심과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심에 대한 것과 복음의 진수들은 옛 것들을 재해석하여 전한 것들이다. 다만 이 해석은 문자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로써 영적으로 이뤄졌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전 것들 곧 옛 것들은 병든 것들이고 불완전한 것들이며 일시적인 것들이고 잠정적인 것들이며 땅의 것들이다. 이것들은 건강한 것들, 완전한 것들, 영원한 것들, 항구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이 나타나면 사라질 것들이다. 그것은 마치 밤에는 달빛이 유용하지만, 햇빛이 나타난 낮에는 무용한 것과 같다. 한국 그리스도교 초기 신학자였던 최병헌(崔炳憲, 1858-1927) 목사가 “성산유람기”(聖山遊覽記)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을 때에는 풀죽도 마다하지 않지만, 먹을 것이 풍부하고 부유한 때에는 풀죽이 필요 없어지는 것과 같다. 율법시대가 달빛시대라면 복음시대는 햇빛시대인 것이다. 율법시대보다 더 뛰어내고 완벽한 복음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율법시대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율법시대가 나빴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시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대로서 당대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다.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고대 근동세계와 고대 그리스로마세계에 이스라엘의 율법과 유대교보다 더 뛰어난 성문법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유일신만을 섬기는 종교는 없었다. 그 세계는 다신 세계였고, 제왕을 포함한 각종 동물과 같은 피조물을 신들로 섬겼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역사의 연구> ‘제4편 문명의 쇠퇴’에서, 당대의 유대인들이 천부적 재능으로 유일신사상이란 정신적 보물과 탁월성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과도적 단계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절대시하고 우상화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강림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제공한 한층 더 큰 보물을 거절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응보로써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2천년 가까운 세월을, 한때 그들이 괴롭혔던 그리스도교가 국교인 나라들에서, 방랑자처럼 떠돌았다.⁷⁾

신약성경은 옛 것들, 문자적인 것들, 땅의 것들, 일시적인 것들, 잠정적인 것들을 새 것들,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 항구적인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고 참되고 진실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여 년에 이미 플라톤은 지상의 것 곧 현존하는 것은 하늘의 것 곧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

7) 토인비, <역사의 연구 I>, 노명식 역(서울: 삼성출판사, 1990), 361.

형이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 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로 통합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고 했다. 히브리서 저자는 7장 18절에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였다” 고 했고, 10장 9절에서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 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관련된 것들을 나쁘다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즐겨 쓴 “더 좋은 것”이란 표현은 ‘그냥 좋은 것’과 비교해서 ‘더욱 좋은 것’이란 뜻이다. 저자의 이 비교는 총체적으로 ‘더 좋다’가 아니라 최소한 ‘구원에 속한 것에서 더 좋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약의 것들이 구원에 속한 것에서 한층 더 큰 보물로 새로 부각된 것이라면, 구약의 것들은 구원에 속한 것에서 이전 시대에 일시적으로 좋은 것에 불과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서 구약의 것들이 좋은 것이었다는 뜻은 흠이 없거나 완전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탁월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이전에 좋았던 것이라도 더 이상 이전 것을 고집하지 않게 되듯이 새 것으로 인해서 옛 것은 자연스럽게 폐기되고 만다.

옛 것의 상징이었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따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 하였다. 세례 요한이 왜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고 말했는가?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지칭한 것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교를 세우신 분이다. 따라서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는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교가 흥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은 세례 요한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써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다. 따라서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쇠함과 더불어 유대교가 쇠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례 요한의 이 유명한 말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겠지만,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2. 가톨릭교회의 구원론

가톨릭교회의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는 두 가지로써 그 첫 번째가 가톨릭교회가 그리스도교(개신교)의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반(역)종교개혁(counter reformation)의 일환으로써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이탈리아 북부 트렌토와 볼로냐에서 개최한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ient)가 반포한 교령이다. 두 번째는 1986년 교황청이 12명의 추기경과 감독들로 ‘교리서 위원회’(Commission of Cardinals and Bishops)를 구성하고 7년 만에 발간한 총 4부(제1부 신앙고백, 제2부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제3부 그리스도인의 삶, 제4부 그리스도인의 기도), 2,865 조항, 1320쪽으로 구성된 <가톨릭교회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이

다.

1) 원죄, 대죄, 소죄, 자유의지 및 세례에 대해서

가톨릭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 루터, 칼뱅,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원죄를 주장하나, 인간의 노예의지를 주장한 루터와 칼뱅과는 달리 자유의지와 선(先)은혜(prevenient grace)를 인정한다. 웨슬리도 자유의지와 선(先)은혜를 인정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 웨슬리가 전적타락(완전부패)을 인정한 반면, 가톨릭교회는 전적타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웨슬리는 원죄를 인정하였으나 선(先)은혜로 인하여 원죄가 말살된다고 보았고, 죄의 샅인 사망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자범죄 때문이라고 하였다.⁸⁾ 스톤-캠벨운동의 개혁가들은 원죄와 전적타락을 부정하고 자유의지와 선(先)은혜를 인정하였다.

1546년 6월 17일에 속개된 트리엔트 공의회 제5회기에서 원죄가 다뤄졌다. 원죄에 관한 교령에 따르면, 아담의 원죄가 아담뿐 아니라 후손에게 상해를 입혔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공의를 상실케 하였으며,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인류의 육체의 죽음과 고통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초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파문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⁹⁾ 이처럼 가톨릭교회는 원죄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여 전적부패 혹은 전적타락을 부정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405조는 “원죄는 비록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은 잃었지만, 인간 본성이 온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은총의 생명을 줌으로써 원죄를 없애고 인간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지만, 약해지고 악으로 기우는 인간 본성에 미친 결과는 인간 안에 집요하게 남아서 영적 싸움을 치르게 한다.”¹⁰⁾고 하였다. 반면에 420조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죄에 대한 승리는, 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¹¹⁾고 하였다. 가톨릭교회는 이 원죄뿐 아니라 본죄와 그 죄벌까지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는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원죄에 대한 교령은 “세례가운데서 배푸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원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또 심지어 죄의 참되고 고유한 본성을 지닌 전체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그것은 단지 삭제될 뿐 전가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¹²⁾고 하였다.

8) 웨슬리의 견해는 성기호, ‘칼빈의 예정론과 웨슬리의 자유의지론,’ <목회와 신학> 1992년 7월호, <http://www.kirs.kr/data/calvin/calvin046.pdf>; 장기영,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그 분기점으로서 웨슬리의 선행은총론,’ <신학과 선교>(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2014), <https://www.theosnlogos.com/search/웨슬리의 선행은총>.

9) Philip Schaff, ed. and David S. Schaff, revised,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I(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5 reprinted), 83-88(제5회기).

10)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번역, <가톨릭교회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181(405조), 184-185(416조).

11) <가톨릭교회교리서>, 185(420조).

12)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I, 5, 87(제5회기).

가톨릭교회는 본죄(자범죄)를 대죄(죽을 죄)와 소죄(용서받을 죄)로 나눈다.¹³⁾ 대죄는 “죽을 죄”¹⁴⁾를 말한다. “대죄는 사랑의 상실과 성화은총의 박탈, 곧 은총 지위의 상실을 초래한다. 만일 대죄가 뉘우침과 하느님 자비로 속죄되지 않는다면, 하느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소죄는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소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간적으로 속죄할 수 있다. ‘소죄는 성화은총,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 사랑과 영원한 행복을 박탈하지는 않는다.’”¹⁵⁾고 하였다.

2)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가톨릭교회는 구원의 근원(근거)을 값없이 받는 은혜 곧 하나님의 선물로 본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근거보다는 구원의 수단(통로) 곧 일정 수준의 행위와 성례(성사)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은혜를 강조한 글들이 <가톨릭교회교리서> 1996-9조에 담겨있다. 1996조는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화(義化)된다. 은총은 하느님의 자녀 곧 양자가 되고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는 사람이 되라는 하느님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이며 거저 주시는 도움이다.”고 하였고, 1997조는 “은총은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참여이다. 곧 은총은 우리를 성삼위의 내적 생활 안으로 이끌어 준다.”¹⁶⁾고 했으며, 1998조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러한 부름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 부름은 스스로 거저 베푸시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만 당신을 제시하시고 당신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름은 인간 지성의 능력과 의지의 힘을 초월하며, 어떤 피조물의 능력과 힘도 초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1999조는 “그리스도의 은총은 무상의 선물이며,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죄에서 치유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당신의 생명이다.”¹⁷⁾고 하였다.

3) 구원의 수단에 대해서

1547년 1월 13일에 속개된 트리엔트 공의회(Concilium Tridentinum) 제6회기에서 의화(justification)가 다루졌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이 인간 구원의 시작이요, 모든 의롭다함의 기초요 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이건 행위가건 의롭다함(칭의)에 선행하는 어떤 것도 의롭다함의 은혜 자체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하였다.¹⁸⁾ 또 “만일 누가 사람의 본성의 가르침으로 하든, 율법의 가르침으로 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

13) <가톨릭교회교리서>, 690-693(1854-1864조).

14) <가톨릭교회교리서>, 695(1874조).

15) <가톨릭교회교리서>, 692(1861, 1863조).

16) <가톨릭교회교리서>, 729-730(1996, 1997조).

17) <가톨릭교회교리서>, 730(1998, 1999조).

18)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I, 97(제8장).

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과문 받아야 한다.”¹⁹⁾고 하였다. 가톨릭교회는 “신앙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²⁰⁾ 또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총과 내적인 도움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믿는 것이 참으로 인간적 행위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자유나 지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²¹⁾고 했다. 또 “‘신앙’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²²⁾고 했다.

여기서 드러난 사실은 “믿는 것이 참으로 인간적 행위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가톨릭교회가 구원을 받는 수단(통로)으로써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先)은혜에 대한 인간의 조력과 세례성사나 고해성사 등을 믿음보다 더 많이 강조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므로 “신앙 안에서, 인간의 지성과 의지는 하느님의 은총과 협력한다.”²³⁾고 했고, “‘믿는다는 것’은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인간 행위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한다.”²⁴⁾고 했다. 또 “의화(의롭다하심)는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협력 관계를 이룬다.”²⁵⁾고 했고, 선(先)은혜(prevenient grace) 교리를 통해서 신인 협력을 강조한다.²⁶⁾ 게다가 가톨릭교회가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행위이다.”²⁷⁾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신비체의 머리가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다.”²⁸⁾ 또 “우리는 문서와 구전으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에 포함된 모든 것과 교회가 거룩한 계시로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는다.”²⁹⁾고한 것은 구전(口傳)과 인위적인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는 그리스도교(개신교)의 주장이나 믿음과 회개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주장한 칼뱅과 크게 다르다.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종류로 나눠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무상의 선물”인 “세례으로써 받는 성화은총(聖化恩寵, gratia sanctificans)”이다. 이를 “성사은총”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先)은혜(prevenient grace), 곧 하나님이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받아드리도록 인간을 준비시키는... 회개의 시작이나 성화 활동의 과정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가리키는 조력은총(助力恩寵, gratia actualis)”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조력은총은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한다.” 또 조력은총을 “회개의 시작이나 성화 활

19)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I, 110(On Justification, Canon I).

20) <가톨릭교회교리서>, 100(183조).

21) <가톨릭교회교리서>, 90(154조).

22) <가톨릭교회교리서>, 99(179조).

23) <가톨릭교회교리서>, 90(155조).

24) <가톨릭교회교리서>, 99(180조).

25) <가톨릭교회교리서>, 728(1993조).

26)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I, 92(제5장).

27) <가톨릭교회교리서>, 100(181조).

28) <가톨릭교회교리서>, 730(1997조).

29) <가톨릭교회교리서>, 100(181, 182조)

동의 과정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가리킨다.”³⁰⁾고 하였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죄인)은 이 하나님의 조력은혜 곧 성화은총에로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협력)할 수도 있고 또한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화은총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무죄한 어린 아기라도 이 성화은총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죄인)은 이 하나님의 조력은혜 곧 성화은총에로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협력)할 수도 있고 또한 거절할 수도 있으며, 잃어버린 성화은총은 고해성사나 완전한 통회(사랑의 통회, contrition)로써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성령의 은총이 작용하여 내는 첫 결실은 회개”³¹⁾이고, “회개는 보통 고해성사로써 이루어지진다.”³²⁾고 하며,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를 ‘완전한’ 통회(사랑의 통회)라 한다. 이 통회는 소죄를 용서해 주며,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 죽을죄도 용서받게 해 준다.”고 가르친다.³³⁾

무죄한 어린 아기라도 성화은총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너무 어려서 아직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할 수 없는 유아에게 가톨릭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근거는 ‘사효성’ 교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교회는 성례 집례자(執禮者)의 태도나 수례자(受禮者)의 자격에 상관없이 교회에 의해서 베풀어진 성례(opus operatum=행해진 행위 혹은 ex opere operato=수행된 행위로부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오는 효력(virtus operativa)을 일으킨다고 주장해왔다.³⁴⁾ 반면에 루터, 츠빙글리, 칼뱅, 부처, 노스와 같은 16세기의 개혁가들이 유아세례를 포기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들이 가톨릭교회의 사제출신들이었을 뿐 아니라, 국가종교 또는 시의회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루터교회, 개혁교회, 영국교회가 다 국가종교였으며, 츠빙글리와 칼뱅이 시의회종교 교리에 반대한 재침례파를, 영국교회가 국가종교의 교리에 반대한 청교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이나 익사로 다스렸던 것은 교리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국가종교 또는 시의회 종교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루터가 농민전쟁에서 약자인 농민들이 아닌 귀족(영주) 편에 선 이유도 “전통을 최대한 지켜내고 싶었기” 때문이다.³⁵⁾

루터는 가톨릭 전통을 최대한 지켜내면서 타락한 교회의 개혁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원시교회의 전통과 원형 회복(환원)에 적극 반대하였다. 반면에 신약성경의 침묵을 금지로 보았을 만큼 원시교회의 질서(신약성경교회의 의식, 형식, 구조)를 철저히 회복(환원)하고자 했던 츠빙글리와 칼뱅은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국교와

30) <가톨릭교회교리서>, 730-732(1999-2003조).

31) <가톨릭교회교리서>, 727(1989조).

32) <가톨릭교회교리서>, 690(1856조).

33) <가톨릭교회교리서>, 564(1452조).

34) 박도식, ‘[상식교리]33. 사효성, 인효성,’ <가톨릭신문>, 제1240호 2면, [입력: 1981.02.01], <https://m.catholictimes.org>.

35) C. 레오나르드 알렌, 리처드 T. 휴스, <환원 운동의 뿌리> 백종구, 서요한 공역(서울: 쿤란출판사, 2010), 49.

교구제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유아세례를 포기하지 못하였고, 성인 세례자들만을 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게다가 선택과 유기(버림)를 하나님의 절대주권(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그리스도의 대속, 성령의 조명, 믿음과 회개 등)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한 칼뱅이 모든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한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츠빙글리, 칼뱅, 루터는 국가종교의 틀에 갇혀있었고, 이 틀 안에서 “기존질서의 성직자로서 누리던 특권과 권력”과 “국가교회라는 것에 태생적으로 내재된 타협과 거룩하지 못한 연합”을 포기하지 못하였다.³⁶⁾

유럽에서는 가톨릭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교(개신교)들에도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 츠빙글리와 칼뱅은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정교분리를 주장한 재침례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시의회는 이들을 역사(침례를 조롱할 목적)나 화형 등으로 처형하였다. 그러나 성속(聖俗)분리 평화주의자들이자 무저항주의자들이었던 재침례인들은 그 어떤 저항이나 반항도 하지 않았다. “츠빙글리는 개혁가로서 처음에는 유아세례 반대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결국 국교에 대한 충성과 교구제도가 그의 길을 막았다. 그에게 있어 교회는 하나의 배타적인 교파가 아닌 넓게 포용하는 조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교회가 세례 받은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성인 신자들만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츠빙글리는 “신약이 명확히 인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의 철석같은 주장을 깨뜨렸다... 츠빙글리에게 있어 유아세례는 시민의 질서와 교회의 안정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다.”³⁷⁾

4) 구원의 시간에 대해서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믿음이 성직제도와 교회의 행위인 성사를 통해서 이뤄지고, “성사은총”을 통해서 의화(칭의)은혜를 입는 것이므로 세례를 받고 견진례를 받은 후 처음 성체(성찬떡)를 영하는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세례성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견진성사로 굳건하게 되며, 성체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받는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난다... 이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³⁸⁾고 한 이유이다. 가톨릭교회는 이 같은 성례들(7성사의 의식)에 ‘사효성’(opus operatum=행해진 행위 혹은 ex opere operato=수행된 행위로부터) 곧 성례 집행자(執禮者)의 태도나 수례자(受禮者)의 자격에 상관없이 교회에 의해서 베풀어진 성례 그 자체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작용하는 능력(virtus operativa)을 갖는다고 믿어왔다.³⁹⁾

가톨릭교회는 7성사(Sacraments) 곧 세례성사(Baptism), 견진성사(Confirmation), 성

36) <환원 운동의 뿌리>, 51-54.

37) <환원 운동의 뿌리>, 53-54.

38) <가톨릭교회교리서>, 487-8(1212-1215조).

39) Richard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Grand Rapids: Baker House, 1986), s.v. "ex opere operato."

체성사(Eucharist), 고해성사(Penance/ Reconciliation), 병자성사(Anointing of the Sick/ Extreme Unction), 성품성사(Holy Orders), 혼인성사(Matrimony)를 일컬어 은혜를 받는 통로(channels)라고 주장해왔다. 이들 성례들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 성모의 손을 거쳐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이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매로 인하여 고인 은혜의 저수지로부터 은혜의 유입을 받는 수로(水路)라고 주장해왔다.⁴⁰⁾ 가톨릭교회가 1300여년이나 지속되어온 침수세례의 사도전통을 약식세례로 변개(變改)하고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사효성 교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교회를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본다. 가톨릭교회는 교회를 “인간과 하느님의 결합의 신비”와 “구원의 보편적 성사”로 본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계획의 목적인 당신의 신비를 교회 안에서 완성하고 계시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⁴¹⁾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성사이고,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친교의 표지이자 도구이다.”⁴²⁾ “성사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백성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구원의 보편 성사로 세우시어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보여 주며 실천하신다.”⁴³⁾ 따라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어 진다는 의미이다.”⁴⁴⁾ 구원은 교회가 베푸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⁴⁵⁾ 성사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말한다. 또 “‘성사’는 ‘신비’가 가리키는 구원의 감추어진 실재에 대한 표징을 더 가시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의 신비이다... 거룩하시며 또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인성이 이루신 구원의 업적은 교회의 성사들 안에서 드러나고 작용하는 구원의 성사이다. 일곱 가지 성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펼치시는 표지이며 도구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의미하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간직하고 이를 나눈다. 이러한 유비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성사’라고 부른다.”⁴⁶⁾고 말한다.

5)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인간은 믿음(신앙)으로 의롭게(의화) 되지만, “이 믿음은 선행을 통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행은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후의 심판 때에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⁴⁷⁾라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입

40) John A. O'Brien, *Finding Christ's Church*(Notre Dame: Ave Maria Press, 1950), 46.

41) <가톨릭교회교리서>, 329-331(771, 772, 774, 775조).

42) <가톨릭교회교리서>, 333(780조).

43) <가톨릭교회교리서>, 332(776조).

44) <가톨릭교회교리서>, 359(846조).

45) <가톨릭교회교리서>, 402(977조).

46) <가톨릭교회교리서>, 331(774조).

47) 양종규, ‘선행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가톨릭 디다케>, [입력: 2008년 1월],

<http://didache.eduseoul.or.kr/magazine/view.asp?cpage=9&yy=2008&mm=1&cnum=1520&idx=&wt=>

장이다.

박도식 신부는 ‘공로(功勞)란’ 글에서 자연공로와 초자연적 공로가 있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초자연적 공로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고 하였다. 또 “이 공로 없이는 우리에게 영혼구원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초자연적 공로는 우리 구원의 필수조건이다.” 고 하였다. 초자연적 공로를 세우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의지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하는 착한 행동” 이 있고, “하느님을 위한 초월적 지향” 이 있으며, 은총상태나 은총지위에서 선행을 베푸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⁴⁸⁾ <가톨릭대사전>은 “사실 의화는 오로지 은총 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되 인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로지 신앙만이 의화시키나 진정한 신앙에는 선행이 없지 않다. 의화는 유일회적(唯一回的) 사건이면서도 일생에 걸친 과정이다.” ⁴⁹⁾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가톨릭교회는 의화 곧 구원의 결과로써 선행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트리엔트 공의회 의화교령 제16장은 의화의 구체적 결실과 열매로써 선행과 공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영생은 끝까지 일 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활히 여김으로 약속하신 은혜가 제안된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 약속에 따른 상급으로 그들의 선행과 공로에 신실하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께서 지체들의 머리로서, 그리고 가지들을 위한 포도나무로써 상기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의 효력(virtue)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 효력은 항상 그들의 선행을 이끌고 함께하고 따르는데 그 효력 없이 선행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공로가 될 수 없다.⁵⁰⁾

가톨릭교회는 성화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공로를 세울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참된 공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엄밀히 말해서, 하느님 앞에서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선행의 공로는 하느님 선의의 선물이다.” ⁵¹⁾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이로움의 결과,... 공로는 우선 하느님의 은총에 속하고,... 인간의 공로 역시 하느님께 속한 것이다.” ⁵²⁾고 하였다.

둘째, 참된 공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천이다.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세우는 공로의 원천이다.” ⁵³⁾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세우는 모든 공로의 원천이 된다. 은총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킴으로써 우리 행위에 초자연적 성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하느님과 인간들 앞에서

48) 박도식, ‘[상식교리]63. 공로(功勞)란?’, <가톨릭신문>, 제1279호 4면, [입력: 1981.11.08], <https://m.catholictimes.org>.

49) <가톨릭대사전>, s.v. ‘의화.’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search.asp

50)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I, 107-8(제16장).

51) <가톨릭교회교리서>, 734(2007, 2009조).

52) <가톨릭교회교리서>, 739(2025, 2026조).

53) <가톨릭교회교리서>, 739(2026조).

공로가 되게 해준다.” 54)

셋째, 참된 공로는 성령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행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주도와 도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은총을 받은 뒤 우리는 성령과 사랑의 인도를 받아,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의 성화를 위해, 은총과 사랑의 성장을 위해,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한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공로를 세울 수 있다.” 55)

이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는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은혜)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루터 시대에 프란체스코 수도승 신학은 죄인일지라도 이 은혜를 받아 낼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마르틴 루터가 속했던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 수도승 신학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무능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先)은혜’ (prevenient grace)를 부여하심으로써 성화케 하는 은혜(성화은총)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공로를 쌓도록 한다고 믿었다. 여기서 선(先)은혜란 ‘작용하는 은혜’ (operating grace) 또는 조력은총(助力恩寵, gratia actualis)을 말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이해를 조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나 회개를 말하며,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공로’ 또는 ‘일정한 수준’이란 중세교회가 가르쳤던 ‘재량공로’ (載量功勞, meritum de congruo)를 말한다.⁵⁶⁾

재량공로는 하나님의 성화은총으로 의화(칭의)된 자의 행위가치를 일컫는 ‘적정공로’ (適正功勞, meritum de condigno)와는 달리 의화(칭의) 되지 않은 자의 자연적 행위가치 곧 성화은총을 받기 위한 일정수준의 행위의 가치를 일컫는다. 가톨릭교회는 죄인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유의지 즉 선과 악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성화은총이 없이도 죄인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contrition)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형벌을 피하기 위한 회개(attrition)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순종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성화케 하는 은혜 곧 성화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재량공로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상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죄인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가톨릭교회는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Facienti quod in se est, Deus non denegat gratiam=To the one who does what is in him, God does not deny grace.)라는 말로써 표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예비행위에

54) <가톨릭교회교리서>, 735(2011조).

55) <가톨릭교회교리서>, 734(2008조), 735(2010조).

56) Louis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Carlise, Pen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5), 211-216. See also Richard A. Muller, s.v. "meritum, gratia."

대한 열매이다. 인간은 일정수준의 공로를 먼저 행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는다.⁵⁷⁾

가톨릭교회는 죄인이 재량공로로 입은 성화은총을 입고 의화(칭의)된 자가 쌓는 공로를 적정공로라 일컫는다. 성화은총은 죄인을 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선행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영혼에 수급되어 죄를 사하고 죄를 제거한다. 죄가 선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은혜를 입고 의화된 자는 혼자만의 노력이나 수고로써가 아니라, 성령님의 성화케 하는 능력에 힘입어 전보다는 수월히 실질적인 의에 도달할만한 공로를 쌓음으로써 비로소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가톨릭교회가 의화를 칭의(稱義/justification)와 동일시한 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교(개신교)에서 말하는 점진성화(聖化/sanctification)와 많이 닮았다. 이것이 가톨릭교회가 ‘칭의’ (稱義)라 말하지 않고 ‘의화’ (義化)라고 말하는 이유일 것이다.⁵⁸⁾ 그리스도교에서의 점진성화는 가톨릭교회의 의화가 의미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차이점이 매우 크다.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온 인류를 위한 충족한 행위로 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물론 성인들의 공로 그리고 개개인의 공로와 병합하여 구원의 교리를 주장하였다. 그리스도나 성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고도 남은 공로들을 행하였으므로 이 여분의 공로를 쌓아 둔 창고(treasury of merits)가 있다고 주장하여 면죄부 판매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⁵⁹⁾

가톨릭교회 사제(장로)들의 면죄특권은 요한복음 20장 23절인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면죄(indulgence)는 ‘이미 사함 받은 죄’ 에 대한 일시적 형벌(temporal punishment)을 교회로부터 면죄 받는 것을 말한다. 바꿔서 말하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만, 죄로 인한 상처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일시적 형벌을 통해서 치유 받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일시적 형벌을 받는 곳이 연옥(purgatory)이다. 그러므로 연옥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는 곳이요. 완전하지 못한 것을 완전케 하고, 죄로 인한 불결을 정화하며,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다. 따라서 면죄(indulgence)는 형벌을 사하는 것이요. 연옥에서의 정화과정을 면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면죄특권은 교회의 영적 창고(spiritual treasury of the church)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충족, 성모와 성인들의 완벽한 삶, 순교자들의 잉여공로(supererogatory merit) 창고에 근거하고 있다. 교황의 면죄특권은 바로 이 잉여공로 창고에 쌓인 성인들의 공로를 회사함으로써 연옥에서의 일시적 형벌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다.⁶⁰⁾

57) *Ibid.*

58) *Ibid.*

59) Walter A. Elwel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s.v. "indulgences."

6)가톨릭교회의 의화와 그리스도교의 칭의의 차이점

(1)가톨릭교회의 의화(義化/justification)

의화는 의롭다고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의화는 선(先)은혜의 유입으로 이루어진다. 신자 속에 있는 성화케 하는 은혜(성화은총)는 신자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만든다. 인간은 자신의 실질적인 의에 의해서 의화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중생한 자만을 의화 하신다. 의화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중생 시키는 행위이다. 죄인은 전가된 의에 의해서만 의화 될 수 없고, 그의 심령 속에 부어진 의에 의해서만 의화 될 수 있다. 의화는 죄인이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는 은혜의 성령께서 신자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포된다. 의화는 인간 자신 속에 있는 실재성에 대한 선언이다. 중생케 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의롭게 하도록 한다. 의화는 죄를 전체적으로 제거한다. 오직 정욕과 연약함만이 남는다. 성화케 하는 은혜(성화은총)는 신자 속에 있는 것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을 행한다. 성화케 하는 은혜(성화은총)는 신자 속에 있는 것과 함께 연합하여 신자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만든다.

(2)그리스도교의 칭의(稱義/justification)

칭의는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義)의 전가(轉嫁)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받으실 만하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한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칭의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신자를 칭의 하신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인성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죄선언이다. 죄인은 하나님의 전가된 의에 의해서만 칭의 된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마치 의인처럼 취급하게 하신다. 신자는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러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포된다. 칭의는 인간의 자리에 대신 서신 예수님께서 의롭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이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심령에 중생(거듭남)과 성화(聖化)를 가져오게 하신다. 죄는 칭의와 중생 후에도 인간의 본성에 여전히 남는다. 신자는 하나님의 가능케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 대해서 어떠한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 선행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 중보를 통해서만 받으실 만하며,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는 신자의 선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류의 행함의 부족을 충족시킨다. 신자는 언제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인성 속에서 받아드려진다.

7)그리스도교에서의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

그리스도교에서는 칭의를 법적문제로, 성화를 우리의 상태 즉 본질 문제로 취급한다. 따라서 칭의는 위법에 따른 유죄성에 문제로, 성화는 위법의 결과인 부패성의 문제로 취급한다. 칭의는 외적, 객관적, 선포에 의한 의로써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60) *Ibid.*, s.v. "purgatory."

의 역할을 담당하시며, 성화는 내적, 개인적, 만들어진(보상된) 의로써 성령은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신다. 물론 그리스도는 대속자로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중보자이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하여금 친히 원수 된 인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전가된 의를 칭의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는 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칭의의 순간에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침례 가운데서 성령에 의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이를 초기성화라고 한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을 말하며 행위가 수반되는 순종의 믿음을 두고 말하지 않는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의하는 것이요, 또 그를 구세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성화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무죄선언을 받고 구원함을 입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말하며 점진적으로 성화 되어 가는 삶을 말한다. 이것은 만들어진 의 또는 보상된 의라고 불리는 실질적인 의이다. 가톨릭교회의 의화와는 달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성화가 상급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구원의 문제는 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 가톨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으로 믿음과 일정 수준의 행위를 동시에 말해온 반면에 그리스도교에서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해왔다.

3. 루터의 구원론

원죄와 유아들의 죄에 대해서 유대교와 스톤-캠벨운동권 교회들이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가톨릭교회, 루터와 칼뱅은 인정한다. 부패(타락)에 대해서 루터와 칼뱅이 완전 부패(타락)를 주장한 반면에 가톨릭교회와 스톤-캠벨운동권은 인간의 부패(타락)를 인정하지만 완전부패를 부정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에 대해서 유대교는 율법준수를 절대조건으로 강조하여왔고, 가톨릭교회, 웨슬리,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인협력 곧 선(先)은혜를 주장하였으며, 루터는 “노예(속박)된 의지”를, 무조건적인 선택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강조한 칼뱅은 “오직 성령의 ‘특별한 은총: gratia specialis(=special grace)’으로 주어진 거듭난 자(만)의 자유의지를” 말함으로써 죄인으로서 구원에 이를 자유의지를 거부하였다.⁶¹⁾ 침례는 유대교에서 그것이 개종을 위한 것이든 부정을 씻기 위한 것이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정결례에 해당된다. 개종침례가 일회성인 반면에 정결례는 수시로 반복된다. 가톨릭교회는 침례든 세례든 구원을 받기위한 성례로 본다. 스톤-캠벨운동권도 대체로 침례를 구원에 필수과정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초기 구원(칭의와 초기성화)이 이뤄지는 시간개념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루터도 침례를 초기 구원이 이뤄지는 시간개념으로 보았다. 반면에 칼뱅은 조직교회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61) 김재진, “칼빈과 루터신학 유사성에 관한 일고: 노예(속박)된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제27호(2010), 188.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에게는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었다.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루터에게는 행위로써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또 다른 고민은 설사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들을 다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족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겠는가라는 문제였다. 성화케 하는 은혜(성화은총)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온전한 회개(total contrition)를 할 수 있다고 중세교회는 주장하였고,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원하셔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상당한 정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는 그의 행위로나 태도로 볼 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으로 비추어지게 되었다.⁶²⁾

루터는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513-1515년에 시편, 1515-1516년에 로마서, 1516-1517년에 갈라디아서, 1518년에 다시 시편을 강의하였는데, 이 강의와 연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깨달음은 “탑 속 경험”(tower experience)으로 불리는데, 비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있는 탑 속에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⁶³⁾

종교개혁으로 인한 루터의 공헌은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 of God)에 대한 성경적 의미의 재발견이다. 일반적으로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 즉 반드시 죄인과 불의한 자를 처벌하시는 정의로 그 뜻을 풀고 있었다. 그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로 발견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써 이해하게 되었다. 루터의 이러한 극적인 깨달음은 세 가지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⁶⁴⁾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불의한 자들과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정의로써 풀이할 때, 문제는 어떻게 인간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중세교회도 물론 자기 자신의 의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간은 진지한 의도와 성화케 하는 은혜(성화은총)를 받기 위한 재량공로(載量功勞, meritum de congruo)와 출생부터 죽음까지 관련을 맺는 일곱 가지 성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기를 바랐다. 이것이 첫째 단계인

62) Roland H. Bainton, *A Life of Martin Luther: Here I Stand*(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40-45; Hans J. Hillerbrand, ed., *The Reformation: A Narrative History Related by Contemporary Observers and Participants*(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25-26; Owen Chadwick, *The Reformation*(New York: Penguin Books, 1982), 45.

63) Roland H. Bainton, 45-50; John Dillenberger, ed., “Introduction,”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Garden City, New York: Anchor Books Doubleday & Company, Inc., 1961), x vi- x vii.

64) Hans J. Hillerbrand, 27-28.

중세교회의 상황이었다.

둘째 단계는 이해의 단계이다. 시편강의나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의 의는 더 이상 불의한 자를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엄격한 심판의 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변화시키는 은혜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그래서 죄 값에 대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래행위가 더 이상 아니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오직 은혜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물론 중세시대에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들에 의해서 이러한 견해는 어느 정도 공유되었다. 그러나 루터에 의해서, 이 견해는 좀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리로 재천명되었다.

셋째 단계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동일시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성화케 하는 은혜(성화은총)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인간을 의롭다고 취급하시고 간주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⁶⁵⁾

은혜에 대한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을 탄생시켰고, 중세교회의 성례들이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위나 실질적 의의 유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사라지고 오직 은혜만이 우뚝 서게 되었다.

1)마르틴 루터의 <95개조의 의제>

루터의 의인론은 그가 면죄교리에 대해서 토론의 기회를 마련키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캐슬(Castle)교회 문에다 라틴어로 쓴 <95개조의 의제>(The Ninety-five Theses)를 붙일 때만해도 걸음마 수준이었다. 제1조에서 루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되기를 요구하셨다.” 고 했고, 제2조에서는 “이 말씀이(회개하라) 사제(장로)들이 집행하는 고해성사 즉 고백(confession)과 고행(satisfaction)을 말하는 것으로 적절히 이해될 수 없다” 고 하였다. 회개는 단 한 번의 행위이기보다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임전에서 갖는 일종의 계속적인 심정이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결단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95개조의 의제>를 통해서 중세교회의 면죄교리의 잘못된 주장이나 실행을 공격하였다.⁶⁶⁾

가톨릭교회에서 말하는 면죄(indulgence)는 죄는 이미 사함 받았지만 하나님께 죄값을 치려야하며(satisfaction), 이 일시적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잉여공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선한 행위와 함께 교회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바치면, 모두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양의 연옥에서의 일시적 형벌은 면하게 된다고

65) John Dillenberger, “Introduction,” x vii-x ix.

66) John Dillenberger, “Ninety-Five Theses,” 490-500.

가르쳤다. 이 면죄를 보증하는 증서가 교황의 대사에 의해서 발급되었다. 이를 면죄부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교황의 면죄특권은 살아있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믿었다. 역사적으로는 이 면죄특권이 십자군에 참여한 용사들에게 적용되었고, 나중에는 교회에 바치는 기부금에 적용되었다.

루터가 <95개의 의제>를 캐슬 성당문(게시판) 앞에 부착한 것도 도미니칸 수도승 요한 테젤(Johann Tetzel)이 면죄부 구입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키 위해서 로마당국은 성직매매를 공공연히 자행하였고, 성직을 구입한 자들은 매입자금을 충당키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허락 받고 있었다. 테젤은 그의 설교에서 면죄부를 구입한 자는 죄 사함은 물론 형벌을 면하게 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95개조의 의제>에서 루터는 “교황 자신은 죄를 사할 수 없다” (6조). “그러므로 면죄부를 구입하도록 설교하는 자들이나 교황의 면죄부에 의해 사람이 모든 형벌에서 사함 받고 구원받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21조). “동전이 연보함 바닥을 땡그랑하고 때리자마자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날아오른다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 당위성을 인정치 않고 있다” (27조). “면죄부 구입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 것이다” (32조).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누리며, 이 축복은 면죄부 없이 주어진다” (36조). 그러므로 “면죄부에 따른 구원에 의존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52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⁶⁷⁾

2)마르틴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논의를 위한 의제>

1517년 10월 31일의 <95개조의 의제>가 중세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바로 시정하려는 데서 그 의의를 찾는다면, 1518년 4월 열린 하이델베르크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승 독일 총회를 위해서 마련한 <하이델베르크 논의를 위한 의제>(Theses for the Heidelberg Disputation)는 죄, 자유의지, 은총과 같은 신학문제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그리스도교(개신교) 사상이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⁶⁸⁾

여기서 루터는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건전한 생활 교리이긴 하지만 인간을 의로움에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 (1조)고 하였다.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은 치명적인 죄로써 둔갑한다” (3조).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매력도 없고 나빠 보이지만, 그 결국은 진실로 영생을 위한 공로이다” (4조)고 말하였다.⁶⁹⁾

자유의지에 대해서 중세교회가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고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루터는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행하는 한 그것은 치명적인 죄를 범할 뿐이며, 타락후의 ‘자유의지’는 말뿐이다” (13조)라고 주장하였다. “타락후의 ‘자유의지’는 선행에 대해

67) John Dillenberger, “Ninety-Five Theses,” 490-500.

68) John Dillenberger, “Introduction,” x x - x xi.

69) John Dillenberger, “Theses for the Heidelberg Disputation,” 500-503.

서 오직 실현할 수 없는 능력으로써의 가능성을 가지며, 악행에 대해서는 그러나 언제나 실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의 가능성을 가진다.”(14조). “자유의지는 무죄의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 남아 있을 수 없다”(15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행하므로 의로움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죄에 죄를 더할 뿐이며, 이중으로 유죄하게 된다”(16조).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을 죽이며, 욕하며, 정죄하며, 심판하며, 저주한다”(23조). “행함이 많은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행함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많이 가진 자가 의로운 자이다”(25조).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고하지만, 결코 행하여지지 않으며, 은혜는 ‘이것을 믿어라’ 고하지만, 즉시 모든 것이 행하여진다”(26조).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땅히 능동적 사역이라고 불리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수동적이며, 행하여진 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된다”(27조)고 주장하였다.⁷⁰⁾

이후 1521년 보름스에서 열린 왕정회의(Diet at Worms)에 소환될 때까지 특별히 1519년 열린 요한 에크(John Eck)와의 라이프치히(Leipzig) 토론을 통해서 얻은바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이었다. 때문에 로마교황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오를 범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종교회의에서 얻어지는 결론들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종교회의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보름스 왕정회의가 루터에게 그 자신의 저술들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을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존엄하시고 주되신 각하께서 간략한 답변을 요구하시므로 담담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증거 하는 바가 아니거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왜냐하면, 본인은 교황도 종교회의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황이나 종교회의들은 종종 과오를 범하였으며, 상호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인용한 성경말씀에 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아무 것도 취소할 수도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슬러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아멘.⁷¹⁾

1520년 교황청에서 내려진 교서에서는 루터의 모든 저술들을 저주하고 60일 이내에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모두 취소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이 해에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선행에 관한 논문>(The Treatises on Good Works), <로마 교황권>(The Papacy at Rome), <독일 국적의 지배계급에 보내는 호소>(An Appeal to the Ruling Class of German Nationality), <교회의 이교적 예속>(The Pagan Servitude of the Church),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The Freedom of a Christian)와 같은 내용의 글들이 1520년에 발표되었다.⁷²⁾

70) Ibid.

71) John Dillenberger, "Introduction," xxi-x xiii; Roland H. Bainton, 144. 이 인용구에서 생략된 부분은 매우 유명한 루터의 기도문이어서 소개한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3)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완전 타락과 노예의지를 믿었던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원은 두 가지였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오직 은혜’ (Sola Gratia)였다. 루터의 고민은 죄인이 어떻게 준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이었고, 그의 코페르니쿠스적 발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이 살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 of God)를 의존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은혜의 독특성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태도와 그분의 자비로우신 행동에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진노하심에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스스로 취하신 태도와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는 모든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배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의 사역에 의존해야한다는 구원의 원인적 근원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슬로건이 되었다.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원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 (Sola Christo)였다. 그리스도만이 오직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100퍼센트 충분하며, 죄인의 구원을 위한 공로의 근원이다. 성모와 성인들의 중보는 사족에 불과하며, 사제들의 중보 역할도 그 필요성이 전무하다. 따라서 루터이후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공로체제로써의 성례들을 부정하고, 미사의 피없는 희생제사 제도를 배격해왔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고, 인류구원을 위해 죽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구원의 소망이다.

4) 구원의 수단에 의해서

완전 타락과 노예의지를 믿었던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의 수단은 두 가지였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오직 믿음’ (Sola Fide)이었다. “오로지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하는 그리고 효력 있는 이용이다” 고 했고,⁷²⁾ “오로지 믿음만이 행위 없이 의롭게 하며 자유하게 하며 구원한다.”⁷⁴⁾ 또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에서 다스린다.”⁷⁵⁾ 또 “오로지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율법을 완성한다.” 고 하였다.⁷⁶⁾ 이는 중세교회의 공로나 성례들의 사효성(opus operatum=행해진 행위 혹은 ex opere operato=수행된 행위로부터) 개념을 반박하고 인효성(ex opere operantis=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을 주장한 것이었다. 사효성은 성례 집행자(執禮

72) John Dillenberger, "Introduction," x x iii.

73) John Dillenberger, "Freedom of a Christian," 55.

74) *Ibid.*, 57.

75) *Ibid.*, 57.

76) John Dillenberger, "Preface to Romans," 22.

者)의 태도나 수례자(受禮者)의 자격에 상관없이 교회에 의해서 베풀어진 성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오는 효력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하고, 인효성은 성례를 집행하는 자나 그 성례를 받는 자의 정성, 마음자세, 도덕상태,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의 수단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이었다. 가톨릭교회가 교령이나 교회전통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 것이었다. 또한 사제들만이 절대적이고 오류 없는 권위로써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가톨릭교회의 주장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임을 주장한 것이었다.

믿음은 성경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막 16:16)라는 말씀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자 근거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세교회가 행위와 의식에 치중하여 믿음이 없이도 성례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온다는 사효성을 주장함으로써 그 제도적 모순성을 들어냈을 때, 루터는 과감하게 이것을 교회의 바벨론의 포로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성례에 행위만 있고 신앙이 없다면 그것에 아무 효력이 없다. 성례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성경말씀)을 믿는 신앙에 있으며,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있다.⁷⁷⁾ 그러나 루터가 말한 믿음은 가톨릭교회가 주장한 재량공로와 성령님의 선(先)은혜와 비슷하였다.

5) 구원의 시간에 대해서

루터는 “침례에 관한 설교에서” (On Baptism)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침례에 구원을 두신다” (Christ puts salvation into baptism)고 하였다.⁷⁸⁾ 또 루터는 “두 종류의 의” (Two Kinds of Righteousness)란 설교에서 “외인에 의한 의” (外人義, alien righteousness)를 설명하면서 외인(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의이다.” 고 했고, “그러므로 이 의는 침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This righteousness, then, is given to men in baptism)고 하였다. 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고 하였다.⁷⁹⁾

루터에게 있어서 침례의 표지는 물속에 잠기는 행위를 말한다. <교회의 바벨론 감금>에서 루터는 “침례는 오히려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다. 이러므로 나는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하고 싶다.” 고 하였다.⁸⁰⁾ 침례의 의의는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義)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77) John Dillenberger, “Pagan Servitude of the Church,” 291-314.

78) John Dillenberger, “Sermons on the Catechism,” 230.

79) John Dillenberger, “Two Kinds of Righteousness,” 86-87.

80) 지원용 편, <루터 선집 제 7권: 은혜의 해설자 루터>(서울: 컨콜디아사, 1986), 181.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침례의 의의가 이 현세적 삶 속에서는 완성되지 않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는 육체가 무덤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죄와 싸워야 한다고 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침례 받은 모든 신앙인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고 하였다.⁸¹⁾ 이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죄된 인간의 본성이 육체와 함께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육체의 본성을 사멸시키기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루터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간주된 의인이지만 실질적인 의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가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완성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발전과 자기 개혁 및 성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최종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희망이란 단어를 썼는데, “희망이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므로 우리의 침례가 성취되는 희망이다” 라고 하였다.⁸²⁾

침례에 있어서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믿음이었다. 이 믿음은 세계가 의미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또한 성취될 것임을 믿는 신앙이다. 이 믿음은 또 죄에 대하여 최후의 일각까지 투쟁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믿는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하여 싸울 것을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그리스도께서 침례에 구원을 두시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의를 침례 중에 사람들에게 주시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이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침례의 능력을 믿고 침례가 구원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떠나 성례의 효력을 구하는 것은 헛된 수고라고 하였다.

루터에게 있어서 침례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인간이 침례식을 거행하지만 하나님을 대행할 뿐이다. 따라서 침례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며, 인간 쪽에서는 헌신과 변혁과 개혁의 의지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침례가 표지하는 죽음과 부활은 새 창조, 중생 및 영적인 출생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이것을 단순히 “우화적으로 죄의 죽음과 은혜의 생명으로만 이해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침례가 하나의 거짓된 표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생에서 가지고 다니는 죄된 몸이 파멸되기 전에는 죄가 완전히 죽지 않으며 은총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는다.” 고 하였다.⁸³⁾

6)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루터에게 있어서 침례는 순간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영구적인 개혁과 변혁의

81) *Ibid.*, 35.

82) *Ibid.*, 38.

83) *Ibid.*, 181.

문제였다. 왜냐하면, 신자가 살아 있는 한 부단히 침례가 의미하는 바를 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죄된 모든 것을 부단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단히 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와 같이 일단 성례의 침례를 받았으나, 당신은 부단히 죽고 부단히 살아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침례는 당신의 전신을 완전히 삼켰다가 다시 내놓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의 뜻이 당신의 전 생명과 몸과 영혼을 완전히 삼켰다가 마지막 날에 영광과 불멸의 옷을 입혀 다시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침례의 표징을 갖지 않고 또 침례가 뜻하는 것을 갖지 않는 때가 없다. 실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표징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계속하여 더욱 더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생애는 침례이어야 하며, 침례의 표징이나 성례의 성취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홀로 침례, 곧 죽음과 부활에 넘겨졌기 때문이다.⁸⁴⁾

이것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을 돌리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인간 구원의 모든 계획과 사역의 주체이신 하나님 한 분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에게만 찬양을 돌리고 그 은덕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인간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루터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사시는 사람의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예를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기 위해서만 도움이 될 뿐이다” 고 하였다.⁸⁵⁾ 또 루터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당신의 영광을 누리신다면 나는 기꺼이 가난과 질병을 견딜 것이다. 또 이것이 만일 하늘에서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또한 보배롭고 거룩하게 되는 결과라면 나는 기꺼이 궁핍을 겪을 것이다.” 고 하였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충분히 찬양되고 선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우리는 기도한다.” 고 하였다.⁸⁶⁾

7) 루터의 공헌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의 공헌은 오래도록 사장되었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재발견한데 있다. 1520년 11월 출판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루터는 “오직 믿음이 행위 없이, 의롭게 하며, 자유케 하며, 구원한다.” 고 말하였다.⁸⁷⁾ 이것은 이신칭의(以信稱義)로 불리는 것인데, 루터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가톨릭교회의 재량공로, 완전공로, 성화케 하는 은혜(성화은총)의 개념은 루터에 의해서 믿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전가라는 개념으로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당대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개념으로써의 칭의 또는 초기성화

84) *Ibid.*, 182-183.

85) Ewald M. Plass, *What Luther Says*(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6), 538.

86) John Dillenberger, “Sermons on the Catechism,” 218-9.

87) John Dillenberger, “Freedom of a Christian,” 57.

와 인간본질의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점진성화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또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루터는 “힘닿는 대로 로마 교회의 전통적인 체계 안에서 영적인 개혁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몇 가지의 변화를 일궈냈지만, 전통을 최대한 지켜내려고 했다.”⁸⁸⁾ 그래서 루터가 생각한 칭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개념의 무죄선언 즉 하나님께서 죄인의 믿음을 보시고 무죄로 선언하는 간주되고 칭의 되고 선포된 개념의 칭의와는 꽤 차이가 있다. 루터가 성화라는 어휘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칭의론은 성화론과 흡사하며, 가톨릭교회의 구원론의 틀을 완전히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루터가 주장한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행위의 개념을 포함한다. 루터는 완전타락과 노예의지를 주장하였으므로 그의 믿음은 일정부분 (선택된 자만)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받는다고 한 칼뱅과 비슷하였고, 일정부분은 재량공로와 성령님의 선(先)은혜를 주장한 가톨릭교회와 비슷하였다. 루터가 주장한 믿음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이며, 하나님의 전가된 의를 입기 위한 1단계의 의(義) 즉 외인(外人)에 의한 의(alien righteousness)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부족한 의를 채우고 보충키 위해서 가톨릭교회가 성화케 하는 은혜를 부여받게 된다고 가르친 바로 그 자리에 루터는 하나님의 의의 전가를 주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구원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의 선물으로써 즉 은혜로써 설명하였다.

<로마서 서문>에서 루터는 로마서 2장의 유대인 정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개념을 피력하였다. 바울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롬 2:13)라고 해놓고, “율법의 행위로 그의[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롬 3:20)고 한 점에 대해서 루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였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바람 때문에 겉모양으로나 행동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자의(自意)나 율법에 대한 사랑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율법을 미워한다는 것이다.⁸⁹⁾

그러나 율법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지 않은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율법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행위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신령하며, 거룩한 것이기에 신령한 마음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데, 인간으로써 다소나마 거리낌이나 마지못함이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율법의 행위는 가식이며, 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써 간주하실 수 없으며, 우리가 율법을 싫어하고 억지로 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의 재량공로의 가르침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며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였다.⁹⁰⁾

88) <환원 운동의 뿌리>, 49.

89) John Dillenberger, “Preface to Romans,” 20.

같은 맥락에서 1525년 출판된 루터의 <노예 의지론>(The Bondage of the Will)도 이해될 수 있다. 이 책은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Erasmus)가 <자유 의지론>을 쓴 후 그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노예 의지론>에서 루터는 노예의지를 인간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거나 또는 인간이 돌이나 짐승이나 또는 악당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떠한 의지의 행동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적절하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바꿔 말하면, 인간 자신의 결정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관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칼뱅의 완전타락설과 같이 인간은 결정적인 존재문제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유의지는 전혀 자유하지 않으며, 죄악에 예속된 영구한 죄수이며, 노예라고 말하였다.⁹⁰⁾ 은혜가 없이는 자유의지의 능력은 전무하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때문에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하시기 때문이다.⁹²⁾ 다만 인간은 구원과 저주문제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지에나 또는 사탄의 의지의 포로이며, 죄수이며, 예속된 노예일 뿐이라고 하였다.⁹³⁾ 이는 인간이 가식이나 위선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두 다 해낼 수 없다는 뜻으로써 이해된다.

한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율법의 성취는 오직 인간이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에서 진실로 선한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다. 율법을 기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와 우리를 동등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한 욕구를 가지게 되며, 두려움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된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기에 신령한 심령들에 의해서 사랑 받는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죄는 남게 되며, 율법에 대한 증오감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⁹⁴⁾

그러므로 오로지 믿음만이(faith alone) 우리를 의롭게 하며, 율법을 성취하며, 믿음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진 영을 우리에게 가져오며, 이 영은 또한 율법이 목적으로 하는 행복과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하였다.⁹⁵⁾ 이로써 우리는 믿음은 수단으로써 구원을 성취하기보다는 주체로써 구원을 성취하며, 율법을 완성한다. 이렇게 볼 때, 루터의 믿음은 다분히 행위적 개념과 밀접한 관련

90) *Ibid.*, 21.

91) John Dillenberger, "Bondage of the Will," 187.

92) *Ibid.*, 188.

93) *Ibid.*, 190.

94) John Dillenberger, "Preface to Romans," 21.

95) *Ibid.*, 22.

을 맺게 되며, 가톨릭교회의 재량공로 개념을 믿음으로 대체(代替)시킨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루터는 “오로지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하는 그리고 효력 있는 이용이다” 고 했고,⁹⁶⁾ “오로지 믿음만이 행위 없이 의롭게 하며 자유하게 하며 구원한다.”⁹⁷⁾ 또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에서 다스린다.”⁹⁸⁾ 또 “오로지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율법을 완성한다.” 고 하였다.⁹⁹⁾

따라서 루터가 주장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으로써 법정개념의 무죄선언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개념보다는 순종의 믿음을 통한 점진적 성화의 개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글에서 이러한 루터의 개념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다.

믿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음에 처하고, 마음과 정신과 모든 능력 가운데서 사는 아주 다른 인간들로 우리들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동반된다.¹⁰⁰⁾

믿음은 살아있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믿음은 매우 확실해서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라면 천 번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런 유의 확신은 또 그것에 대한 이런 유의 지식은 우리를 즐겁게 하며,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며, 하나님과 또한 모든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 열심을 내게 한다. 그것은 성령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인간은 그 같은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해서 쫓김이 없이 기쁘고 자원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모든 종류의 고난을 참는다. 진실로 믿음으로부터 행위를 분리시키는 것은 마치 불로부터 열과 빛을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불가능하다.¹⁰¹⁾

루터는 “두 종류의 의”(Two Kinds of Righteousness)란 설교에서 이제 살펴본바의 믿음의 단계를 “외인(外人)에 의한 의”(alien righteousness)라고 부른다. 이 의(義)는 그리스도의 의이며, 침례 가운데서 주어지는 의이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며, 이 의(義)는 곧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의(義)를 믿음 그 자체로 생각한다.¹⁰²⁾ 따라서 “이 의는 근본적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실질적인 의에 대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담이 상실한 원래의 의를 대신해서 주어진 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¹⁰³⁾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의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자라는 데까지 일치

96) John Dillenberger, “Freedom of a Christian,” 55.

97) *Ibid.*, 57.

98) *Ibid.*, 57.

99) John Dillenberger, “Preface to Romans,” 22.

100) *Ibid.*, 23-24.

101) *Ibid.*, 24.

102) John Dillenberger, “Two Kinds of Righteousness,” 86-87.

103) *Ibid.*, 88.

하여 더욱더 옛 아담을 몰아내신다. 왜냐하면, 외인에 의한 의는 단번에 모든 것이 부여되지 않으며, 그것은 시작이요, 발전되며, 죽음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결국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¹⁰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의를 형식적 의(formal righteousness)라고도 불렀다.¹⁰⁵⁾ 이 형식적 의는 곧 믿음을 말하며, 이 의는 완전하지 못해서 믿음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에는 죄의 잔존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의는 불완전한 의이며, 연약한 의이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의 전가된 의를 받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의 의에 지나지 않는다.¹⁰⁶⁾

이러한 루터의 믿음에 대한 개념은 가톨릭교회의 재량공로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가톨릭교회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사용으로 하나님의 은혜 즉 성화케 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가르친 점을 미루어 볼 때, 노예의지를 주장한 루터는 이 공로 개념을 믿음으로 대치(代置)하였으며,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전가된 의를 받는 발판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불완전하며, 약하며, 결국 하나님의 의의 전가로 완성되어야 할 의로써 설명하였다. 마치 가톨릭교회의 재량공로가 불완전한 공로였던 것과 같으며, 성화케 하는 은혜(성화은총)로 완전공로에 이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의를 두 단계로 보았고, 두 종류의 의로써 설명하였던 것이다. 제1단계인 믿음의 단계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아직 죄악이 남아 있는 단계이며, 불완전한 의의 단계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우리의 의를 완전한 의로 간주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죄악을 무죄로 간주하신다는 것이다.¹⁰⁷⁾ 이것이 둘째 단계의 의이다.

이러한 루터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원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칭의 개념이 아닌 가톨릭교회의 성화의 논리를 엿볼 수 있는 개념이다.

루터의 제2단계의 의인 실질적인 의는 “당연 의”(proper righteousness)라는 말로써 설명되었다. 이 의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그 의를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첫째 의인 외인에 의한 의와 함께 행하기 때문” 이라고 말하였다.¹⁰⁸⁾ 이는 가톨릭교회가 성화케 하는 은혜와 함께 완전공로에 이른다고 가르친 것과 같다.

루터의 제2단계 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의를 말하고 있다. 다만 이 의를 하나님의 전가된 의라고 말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칭의 개념이 하나님의 전가된 의라고 말하는 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루터가 말하는 이 당연 의 또는 실질 의 또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성화의 의는 루터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104) *Ibid.*

105) John Dillenberger, “Commentary on Galatians,” 127.

106) *Ibid.*

107) *Ibid.*, 129.

108) John Dillenberger, “Two Kinds of Righteousness,” 88.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한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삶, 이것이 첫째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과 두려움 즉 경건의 삶이다.¹⁰⁹⁾ 이 의는 첫째 의인 외에 의한 의의 산물이며 실제적 열매이며 결과라고 한다.¹¹⁰⁾

따라서 이 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이다. 그리고 이 의는 옛 아담을 멀리하고 죄의 몸을 멸함으로써 첫째 의를 이루려고 한다. 이 의는 죄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자신에 대하여 근신하며, 이웃에 의로우며,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이 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한다.¹¹¹⁾ 이 의는, 루터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를 구성하는 “마음의 믿음”과 “하나님의 전가” 가운데 전가의 의를 말한다. 마음의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의는 그 부족함을 채워 완전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믿음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전가로써 완성된다. 마치 가톨릭교회가 행위로 시작해서 성화케 하는 은혜로 완전공로에 도달함과 같다. 믿음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가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 따라서 믿음이 의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전가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시킨다고 한다.¹¹²⁾ 그리스도인의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톨릭교회가 인간의 공로를 주장한 것과 정반대가 된다. 이 단계에서는 불완전한 우리의 의가 완전한 의로 받아드려지고 죄의 잔존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않으신다.¹¹³⁾ 하나님은 죄의 잔존을 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저주하시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덮으시며 거저 용서하실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며, 거룩하면서 불경스러우며,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루터는 말하였다.¹¹⁴⁾ 그리고 선한 행위는 우리의 의가 믿음으로 된 의임을 입증하는 외적 표적이다. 선행은 믿음에서 나오며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선행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실을 입증하는 외적 표적이다.¹¹⁵⁾

이상으로 루터의 구원론을 그가 처해있던 중세 가톨릭교회의 교리적 상황과 루터 자신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알아보았고, 그의 구원론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루터의 새로운 발견은 암흑시기의 인류에게 큰 빛과 소망이 되었으며, 인간 중심의 행위 신앙에서 신 중심의 은혜의 신앙으로 바꾸어 놓은 위대한 업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가 외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은 중세교회로 하여

109) *Ibid.*, 88-89.

110) *Ibid.*, 89.

111) *Ibid.*

112) John Dillenberger, “Commentary on Galatians,” 127.

113) *Ibid.*, 129.

114) *Ibid.*, 130.

115) John Dillenberger, “Preface to Romans,” 27.

금 흑암의 두꺼운 껍질을 벗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토록 하는 안목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그의 구원론은 중세교회의 구원론의 틀을 완전히 벗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으며, 오늘날의 법정개념으로써의 칭의 개념이 인간본질의 개념인 성화의 개념과 구분되고 못했고, 불신자의 구원하는 믿음이 신자의 순종의 믿음과 구분되지 않고 중첩되었다. 또한 가톨릭교회의 재량공로는 믿음으로, 성화케 하는 은혜와 연합으로 이루는 완전공로는 하나님의 전가로 대치시켰다. 그러나 루터는 가톨릭교회의 공로 개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바꿔놓았으며,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었다. 비록 루터에게서 무죄선언으로써의 칭의 개념은 없지만, 그의 이신칭의에 대한 확신은 결국 성경에 대한 주의력을 집중시켰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믿음은 그 구원에 이르는 도구이며, 침례는 구원을 받는 시간이며, 구원의 목적은 선행이다. 루터는 침수를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이 의는 침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 (This righteousness, then, is given to men in baptism)고 했고,¹¹⁶⁾ “그리스도께서는 침례에 구원을 두신다” (Christ puts salvation into baptism)고 주장하였다.¹¹⁷⁾ 또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완전하게 의무를 가진 종이며, 모두에게 예속된다” 고 했고,¹¹⁸⁾ “그리스도인은 자신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고 하였다.¹¹⁹⁾ 이것이 바로 루터가 가르치는 구원받은 자의 참다운 모습이다.

루터의 믿음은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믿음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믿음이요, 모든 고난을 참아내는 믿음이었다. 루터의 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삶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삶이었다. 따라서 루터가 말하는 의인은 죄를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경건하며, 모든 것에 자유 하면서 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줄 알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왕이요, 모든 이의 종으로써 자신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이웃 속에 살면서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썩고 병들고 부패된 교회, 성직이 매매되고 면죄부가 판매되고 부도덕이 자행되던 교회에 의연하게 맞설 수 있었던 예언자였다.

4. 칼뱅의 구원론

요한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신학은 완전타락(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구속(Limited Atonement), 거절할 수 없는 은혜

116) John Dillenberger, “Two Kinds of Righteousness,” 86.

117) John Dillenberger, “Sermons on the Catechism,” 230.

118) John Dillenberger, “Freedom of a Christian,” 53.

119) *Ibid.*, 80.

(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곧 툴립(TULIP)으로 축약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완전타락이 인간본질에 관한 문제이고 칼뱅의 교리를 이해하는 핵심논제이다.

완전타락이란 말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유죄하며, 부패하다고 보는 ‘결과론적’ 인간론으로써 칼뱅의 사상은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와 신학논문들 그리고 그의 주석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칼뱅의 인간본질론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의 사상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타락설을 칼뱅이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이다. 따라서 칼뱅의 인간 본질론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사용한 ‘결과론적’이란 말은 필자의 것으로써 원인을 분석하여 설명하는 귀납적 방식을 취하지 않고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연역적 방식을 말한다. 칼뱅은 주어진 결과를 보고 필연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의 계시신학을 취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나 우발성이 개입될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는 약점을 갖고 있으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를 주는 강점을 갖고 있다.

칼뱅이 인간의 자유나 우발성의 개입여지를 차단한 것을 약점이라 하였으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속성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강점이지만, 인간의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약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모든 것의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목적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간이 결정하는 혼계의지도 있으며, 인간이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락의지도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당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시는 분이시며, 피조물을 찾아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의 제한이다. 피조물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 또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완전하지 못함 그 자체가 곧 죄이다. 따라서 주권의 제한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를 두실 수 없고, 특히 배반을 일삼는 이성적 동물인 인간을 두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조물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피조물이 완전하다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나님을 모든 결과의 원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일 우리가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유한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 또한 잘못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므로써 그 책임을 인간에게 두시고도 자유에 따른 인간의 모든 우발적인 행동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1535년 칼뱅은 <제네바 신앙고백서>(Genevan Confession of Faith)를 초안하였는데, 이 신앙고백서에서 칼뱅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소경이며, 흑암에 가려져 있고, 심령이 부패와 뒤틀림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바로 이해하며,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무능력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면, 그는 단지 무지 속에 살 수 있을 뿐이며, 모든 죄 중에 버림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하며, 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구원을 위한 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¹²⁰⁾

이 진술에서 칼뱅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몇 개의 중요한 개념들에 주목할 수 있는데, “소경,” “부패,” “뒤틀림,” “무능력,” 그리고 “무지”와 같은 어휘들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개념을 또한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조명”으로써 이 말은 “구원을 위한 바른 지식”을 얻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제시되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칼뱅 신학의 핵심 어휘는 “부패”와 “하나님의 조명”이란 말로써 축약될 수 있다.

1)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칼뱅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따른 예정,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있다.

인간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적 의지에 바탕을 둔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인간의 의지에 관계없이, 죄인이 복음을 수용하든지 안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의 구원이 결정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신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선택의 원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결과라고 부른다. 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예지나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오직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오직 선택된 죄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전도를 매개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초청에 일반 혹은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은 거절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초청을 받은 자들이 예정이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도자의 수고가 헛된 수고였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초청에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적용되고 거절될 수 없다. 성령님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역사하셔서 조명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로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구원키로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신다.

120) J. K. S. Reid, trans. and e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2, *Calvin: Theological Treatis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n.d.), 27.

반면에 칼 바르트는 예정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시고 인간을 구원과 생명으로 선택하신 사건, 곧 은혜의 선택을 뜻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인간이 서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설 자로 “선택된 인간”인 동시에 모든 인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 선택을,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 버림을,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신 한편, 자기 자신에게는 이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귀를 예정하신 한편, 자기 자신에게는 인간과의 사귀를 예정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몫을 자기가 취하는 대신 자기의 몫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 그는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인간을 높이기로 결정하셨다. 그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살고 새 소망을 얻었다. 따라서 예정은 “완결되어 버렸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시간 속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소명과 의인과 성화와 영화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통하여 발생한다. 공동체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각 개인에 대하여 심판을 집행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신다. 각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 안에서 “그의 은혜의 선택의 대상”이다. 또한 공동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부름으로써 바로 그들의 선택을 선포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선택에 있어서 저주에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에로 예정되었다는 것, 인간은 저주된 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된 자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선택의 약속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건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선택되어 있지만 이 약속을 믿지 않을 때 그는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된 자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¹²¹⁾

2) 구원의 수단에 대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구원의 수단이다.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수단이 없다. 왜냐하면 믿음과 회개조차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완전타락(유죄와 부패)으로 복음을 수용할 능력이 전혀 없다. 죄인은 죽은 자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이다. 죄인의 마음은 기만으로 가득 찼고, 완전히 부패하였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못된 본성에 완전히 속박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 문제에 관한 한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성령의 도움 곧 조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조차도 선택된 자들에게만 허락된다. 인간은 믿음조차도 스스로 가질 능력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특별게시는 오직 선택(예정)된 자들에게만

121) 김균진, <헤겔과 바르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319-320.

열린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구세주가 되시고, 성경도 선택된 자들에게만 계시의 말씀이 되며, 믿음과 회개도 선택된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 다.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부터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내리며, 인간이 구원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피할 수조차 없다.

3) 구원의 시간에 대해서

칼뱅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예정과 선택이 이뤄진 만세전이 구원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죄인에게 임하여 깨달음을 얻고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한 시간이 죄인에게 이뤄진 구원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칼뱅에게 있어서 침례나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나 시간이 될 수 없다. 반면에 그가 국가종교를 지지하여 태어난 모든 유아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여 국가종교에 편입시킨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예정되거나 선택되지 아니했을 수도 있는 유아들에게까지도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칼뱅주의자들은 예정되거나 선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성인들이든 유아들이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 참고로 츠빙글리와 칼뱅은 유아세례를 반대한 재세례파들을 화형이나 익사형으로 엄히 다스렸다. 칼뱅에게 있어서 예정이나 선택의 판단은, 살아생전의 신앙여부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죽는 순간까지 가봐야 그 결과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칼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일컬어 위선자들과 하였다.

4)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칼뱅에게 있어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을 돌리는 것이다. 칼뱅은 “세상이 의심의 여지없이 신성한 영광의 극장이 되도록 창조되었다.”¹²²⁾고 하였다. 또 무상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들이 준수해야 할 두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양심의 평화를 강조하였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에서 두 가지 목적을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분의 판단에서 볼 때 우리의 양심에 평화로운 안식과 고요한 평온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그렇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버릴 때까지 결코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은 보편적 명제로 간주되어야 한다.¹²³⁾

122) John Own, trans.,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by John Calvin*(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7). 266.

12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trans., Henry Beveridge(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reprinted 1983), III.xiii.1-2.

5)부패

칼뱅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들을 상실했으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믿었다.¹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담으로부터의 유전죄 즉 원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 물론 칼뱅은 원죄를 “인간의 영혼 구석구석에까지 퍼진 인간본질의 유전적 타락 또는 부패”¹²⁵⁾라고 기술하였다. 여기서 원죄와 유전적 타락 또는 부패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원죄란 법적 개념의 술어요, 타락이나 부패란 인간본성에 대한 술어로서 질병과 관련이 있는 말이다. 원죄란 인간이 나면서부터 유죄함을 말하는 것이요, 부패란 그 본성이 병들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타락이란 인간이 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유죄하며, 썩고 병들었다는 의미이므로, 칼뱅이 과연 이 교리를 믿었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 프레드 크루스터(Fred H. Kloost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칼뱅 연구에 있어서 이 혁신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볼 때, 칼뱅은 결코 칼뱅주의가 아니었다고 진술될지 모른다는 것이 또한 제시되어진다.... 최근에 칼뱅 사상에 있어서의 중심교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반박되어지고 있고, 증가되는 관심이 칼뱅의 교리에 대한 자료로써 성경의 중심성에 주어지고 있다.¹²⁶⁾

이 진술과 같이 칼뱅의 사상은 칼뱅주의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와는 사상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유전적 타락과 원죄개념에 100퍼센트 동의하고 수용하였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칼뱅의 주장은 원죄와 인간의 본질 문제인 부패를 구분치 않음으로써 절반 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의 견해를 옹호하는 듯 보였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무죄하지 아니하고, 유죄한 자녀를 출생한다. 왜냐하면, 그는 부패한 본질로부터 그들을 낳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¹²⁷⁾ 그리고 “우리는 자범죄(취득한 사악함)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타고난 부패)를 갖고 나온다.” 고 말함으로써 원죄를 말하고 있다.¹²⁸⁾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란 인간(유아)은 무죄하지만 본질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믿는 절반 칼뱅주의(Semi-Calvinism)를 말한다.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은 본질상 타락하였다고 보나, 아담으로 인한 원죄는(롬 5:14) 그리스도의 한 순종의 행위로 인하여 말살되었다고 믿는다. 인간 아담의 범죄로 원죄가 적용되고 모든

124) John T. McNeil, e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0,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y Ford Lewis Battl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n.d.), II.i.7-8.

125) *Institutes*, II.i.8.

126) Fred H. Kl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Grand Rapids: Calvin Theological Seminary, 1961), 7.

127) *Institutes*, II.i.7.

128) *Ibid.*, II.i.5.

사람이 죽는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은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넘쳤다고 바울은 말한다(롬 5:12-21). 그러므로 은사는 범죄에 비교될 수 없으며, 아담의 범죄의 결과보다 더욱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은 아담의 죄의 결과보다 더욱 넘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담의 원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원대하고 그 미치는 범위도 넓다는 뜻으로 보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원죄를 말살하며, 그 범위가 아담에게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절반 펠라기우스주의이다. 그러므로 유아들이나 성인들이나 옛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미래의 사람들이나 모두 원죄에서 해방된다고 본다.

칼뱅이 원죄와 부패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을 일컬어 절반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차라리 그를 아우구스티누스주의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윌리스톤 워커(Williston Walker)는 “칼뱅의 지성은 창조적이기보다는 체계 형성적이었다(formulative)” 고 했고, 리처드 멀러(Richard A. Muller)는 “개혁주의 전통과 관련해서 제2세대 편찬자들 중 한 사람” 이라고 하였다.¹²⁹⁾ 이렇듯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죄개념에 충실치 못했음을 몇몇 인용구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인간이 죄로 물들었을 때, 오염이 인간의 본질에 기어들었다. 때문에 썩은 가지들은 썩은 뿌리에서 나왔으며, 가지들의 썩음은 또한 그 가지들에서 나오는 싹들에 까지도 스며들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부패하였으며, 그들은 그 질병을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한다.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부패는 항구적인 흐름을 타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로 전달되어졌다. 왜냐하면, 오염은 육체나 영혼의 본질에 그 기원을 갖지 않기 때문이며, 첫 번째 사람이 단 한 번에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은사들을 소유하거나 상실토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¹³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칼뱅은 분명히 인간본질의 질병을 다루고 있지, 유죄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그가 사용한 “썩은 가지,” “썩은 뿌리,” “부패,” “질병,” “전달” 과 같은 모든 어휘들은 인간본질에 관련된 용어들이지 법적 개념을 소유한 말들이 아니다. 질병은 유무죄와는 관련이 없다.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죄와 부패는 엄연한 구분이 있는 별개의 문제이다.

인간의 구원문제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를 별개의 것으로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칭의를 법적 개념으로 본다면, 성화는 인간본질의 상태를 말한다. 칭의를 선포되고 간주되고 전가된 의라고 말하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무죄를 선포하심으로써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의 전가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화를 만들어진 의 또는 보상된 의라 부르는 것은 의사이신 성

129) Richard A. Muller, “Was Calvin a Calvinist? <생명과 말씀> 5(2012), 11-79.
https://kirs.kr/data/calvin/calvin_056.pdf.

130) *Institutes*, II.i.7.

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상태를 점차적으로 성결 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표는 바로 이 단번에 이루어진 칭의로 받는 것이며, 성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그리스도교의 정통교리인 것이다. 성화의 정도는 상급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믿는다.

6) 유아 유죄론

칼뱅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은 “죄의 씨앗”이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씹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이 죄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죄는 인간의 부패된 본질에서 유래하는 것이지, 아담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다. 칼뱅은 “불순한 씨앗으로부터 죄의 오염에 날 때부터 전염된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칼뱅이 혼동하는 것은 “죄의 오염”이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은 질병이지, 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뱅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가 유아들이 죄로 태어난다고 보지 않고, ‘죄의 씨앗’으로 태어난다고 보았다.¹³¹⁾ 설사 칼뱅이 유아유죄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유죄는 아담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요, 유아 자신들의 것임을 칼뱅의 다음과 같은 진술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유아들이 모태로부터 그들의 저주를 받아 나온다 할지라도 유아들 자신들의 유죄는 다른 이로 인함이 아니요, 자기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의 열매들이 아직 맺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그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그들의 전체 본질은 죄의 씨앗이다.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증오스런 것이며 가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간주되어진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 함이 없이 정죄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¹³²⁾

우리의 파멸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육욕에 있으며, 그 유일한 원인은 우리의 원래 상태에서 타락했기 때문이다.¹³³⁾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 날 때부터 그들의 저주를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아직 죄를 범하지도 아니한 그들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실제로 유아들이 가지고 나오는 저주 즉 원죄의 결과는 육체의 사망과 고통이지 영적 죽음은 아직 아니다. 피조물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필연적이다. 시작된 것에는 끝이 있기 때문이다. 또 아담과 이브가 증명했듯이 피조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육체와 본능이 부패하고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죄인이 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하나님은, 만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지켰더라면,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내쫓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계속 보존하셨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죄가 아니며, 질병 그 자체가 또한 악이라 할지라도 아직 죄는 아니다. 전 인류의 본질은 부패하기 때문에 죄의 씨앗이 될 수는 있지만, 씨앗 그 자체가 아직 죄로 간주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1) *Ibid.*, II.i.5.

132) *Ibid.*, II.i.8.

133) *Ibid.*, II.i.10.

하고 칼뱅은 죄의 씨앗이 필연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주목하여 죄로 간주하였다. 칼뱅은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를 중시하였다.

7)자유 의지론

칼뱅은 원죄(유전죄)와 완전타락과 속박(노예)의지를 주장한 반면 자유의지를 거부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분별력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에 전혀 쓸모없는(stupid and blind) 것임을 거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곧 영적 지혜와 같은 것이 없다.”¹³⁴⁾고 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온전한 어둠이다.”¹³⁵⁾고 하였다.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려 죄에 속박된 인간의 의지를 마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에 비유하였다. “인간은 죄의 멍에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으로는 선을 추구할 수가 없고, 강제성과 필연성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이 명백하다.”¹³⁶⁾고 하였으며, 그것이 마귀에게 속박된 탓인지, 하나님 탓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의지를 말과 기수(騎手)들에 비유한 글을 인용하여(Pseudo-Augustine, Hypomnesticon II.xi.20)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말에 올라타시면 그분은 온화하시고 능숙한 기수(騎手)이시니, 말을 침착하게 이끄신다. 하나님은 말이 너무 느리게 가면 재촉하시고, 너무 빨리 가면 고삐를 당기시며, 성급하거나 과도히 행동하면 억제시키시고, 나쁜 성질을 제어하시며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그러나 마귀가 안장에 오르면, 무지하고 경솔한 기수처럼 말을 험한 땅으로 몰아가고 도랑에 빠뜨리기도 하고, 벼랑 위로 돌진시키며, 말이 고집을 피우고 난폭하여지도록 박차를 가한다.¹³⁷⁾

칼뱅은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재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자연적 은사들이 전체적으로 파멸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영적 은사들은 소멸되었으며, 남은 자연적 은사들도 부패하였다고 믿었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이성과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인간을 인격체라고 볼 때, 인격의 요소인 지성의 및 관계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이다. 칼뱅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해와 판단을 위한 무엇인가가 의지와 함께 잔여분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약하고 깊은 흑암에 빠진 마음을 건실하고 건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의지의 타락은 너무도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성, 그리고 그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성, 자연적 은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

134) *Ibid.*, II.ii.19.

135) *Ibid.*, II.ii.21.

136) *Ibid.*, II.iv.1.

137) *Ibid.*

었다고 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약화되었고, 부분적으로 부패하였다. 그러므로 이성의 기형적 파멸(폐허)만이 남아있다.¹³⁸⁾

또한 칼뱅은,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인류 전체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잔존을 추적할 수 있다.”¹³⁹⁾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무엇인가 좋은 것이 인간에게 남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무 것도 인간의 것이라곤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겸손해야 한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이후로 가공할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⁴⁰⁾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자만을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어쨌든 칼뱅은 자연적 은사로써 인간의 이성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유의지에 대한 오리게네스의 정의를 받아 드림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였다. 오리게네스의 인간의 의지에 대한 정의는 당시의 교회지도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수용된 견해로써, “자유의지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성의 재능(힘)이며, 이것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재능이다”라고 말하였다.¹⁴¹⁾ 그러나 칼뱅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칼뱅이 과연 죄인이 자유의지로 복음의 초청에 자의로 응할 수 있으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한 번의 논리적 모순성을 드러내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첫째가 율법의 준수를 통한 행위로 받는 구원, 즉 인간의 의로 받는 구원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구원의 길은 인간에게 막혔고(롬 1:18-3:20),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가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하였다(롬 3:21-5:21).

여기서 바울과 칼뱅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칼뱅은 인간의 의지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지식의 개념으로써 성령님의 조명이 없는 특별계시를 부인하였고, 인간이 설사 자신의 의지와 이성적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에 응하였다하더라도, 그의 받은 바 계시는 일반계시에 지나지 않음으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다. 칼 바르트 역시 자연계시나 일반계시의 무용성을 주장하였다. 일반계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뱅이 특별계시를 선택된 자에게 국한시킨 것은 결과론에 치중한 결과이다.

한편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나 도구로써 언급되고 있으며

138) *Ibid.*, II.ii.12.

139) *Ibid.*, II.ii.17.

140) *Ibid.*, II.i.1.

141) *Ibid.*, II.ii.4.

(엡 2:8), 선물로써 보지는 않았다. 구원 그 자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한 죄인에 대한 선물이긴 하지만, 믿음은 그 선물을 소유할 인간의 자세를 말하며, 계시의 정도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물론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에 대한 진술들에 대한 동의라 할지라도, 교리에 대한 믿음은 아니며, 칭의 하심이 점진적 성화와 구분하여 일시적이고 단번에 선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구원하는 믿음은 칼뱅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정도나 깊이 의존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여러 계명들을 주신 그분의 훈계의지에서 그 존재를 찾을 수 있고, 행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충족은 언제나 100퍼센트 준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행위로는 그 누구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선포하였다(약 2:10; 갈 3:10).

이것은 인간이 전혀 아무런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보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뛰어난 이성을 갖춘 동물이란 사실은 자명하다. 그 인간이 하나님이 정한 7미터 넓이의 죽음의 계곡을 뛰어 넘고자 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의 능력의 한계가 6미터라고 치자. 그가 그 죽음의 계곡을 뛰어 넘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만물의 영장이지만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행위로는 누구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칼뱅이 말하는 완전무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인간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고백이다. 칼뱅의 강점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겸손한 신앙고백에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까지 빼앗는다면, 그것은 분명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칼뱅이 인간의 이성이나 자유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단지 칼뱅은 구원받은 자의 신앙고백의 관점에서 결과론에 주목하였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칼뱅은 제롬이나 크리스소스토무스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중세 가톨릭교회의 구원의 교리인 재량공로나 완전공로를 철저히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명백하게 공언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 주된 이유를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도록 하며, 따라서 그들의 공로를 자랑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총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며, 최고의 위안으로 그들을 영감하며, 그들의 공로에 대한 불완전함과 불결함을 생각한 나머지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요, 그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토록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¹⁴²⁾

칼뱅은 또한 의지의 완전한 속박(노예)을 믿지 않았다. 그는 버림받은(유기) 자라 할지라도 선택된 자들과 같이 약간의 신령한 체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였다. 다만 그는 그것을 위선이나 일시적인 것으로 경시하고 말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이 비록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 죄인이 자의로 복음의 초청에 응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8)성령의 조명론

칼뱅의 자유의지론은 그의 조명론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칼뱅이 비록 인간의 의지의 속박이나 법적 개념으로써의 유죄문제에 대해서 불투명한 설명을 함으로써 다소의 논리적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완전타락설이나 완전 무능설 또는 의지의 속박을 배제하고서는 그의 조명론을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칼뱅의 자유의지론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거나 회개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뱅에게 있어서, 믿음이나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며,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나 태도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이 자연을 통한 일반계시이든지, 성경을 통한 특별계시이든지 간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이든지, 성경이든지,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모두 다 일반계시에 지나지 않으며,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만 비로소 성경을 특별계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로 선택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특별계시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칼뱅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고 하였고, 성령은 믿음을 주시는 분일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 신령한 하늘의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도우신다고 주장하였다.¹⁴³⁾

이것은 곧 인간의 무능 또는 완전타락을 말하는 것이며, 이 완전타락이나 무능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나 자연만물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한계이며, 인간의 의(義)에 의한 구원의 논리를 배제하고 하나님에 의(義)에 전적으로 의존케 하려 함이다.

9)믿음과 회개

이러한 신(神) 우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칼뱅에게는 믿음이나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인간이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집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여기서 믿음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장하였다.¹⁴⁴⁾ <기독교 강요>에서도 칼뱅은 “믿음은 성령의 주된 사역이다” 고 하였고, “믿음 그 자체는 성령이외에 다른 근원에 의존되지 않는

142)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op. cit.*, 202.

143) *Institutes*, III.ii.33.

144)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op. cit.*, 105.

다.” 고 하였다.¹⁴⁵⁾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믿음을 정의하였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지식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 위에 기초한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나타났고, 우리의 심령에 봉함된 것이다” 고 하였다.¹⁴⁶⁾

그러나 칼뱅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은 선택된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며,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오직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만이 믿음의 빛을 받으며,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느낀다.” 고 하였고, “버림받은 자들은 은혜에 대한 혼돈된 인식 이외에 아무 것도 결코 받지 못한다.” 고 하였다.¹⁴⁷⁾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택된 자들은 참된 믿음을 버림받은 자들은 거짓 믿음을 갖는다고 하였다.¹⁴⁸⁾ 따라서 참된 믿음은 확신과 확실성을 준다고 하였다.¹⁴⁹⁾

믿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회개도 또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¹⁵⁰⁾ 칼뱅에게 있어서 회개란 믿음의 결과이며, 믿음에 의해 탄생된다.¹⁵¹⁾ 한편 칼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터라, “모든 사람은 외적 전파에 의해서 회개와 신앙으로 부름을 받는다.” 고 하였고, “하늘의 영적인 지혜를 통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비록 하나님의 진정한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하나, 그 사람은 신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소유한다.” 고 하였다.¹⁵²⁾ 따라서 칼뱅은 버림받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거나 신앙을 가질 수 없음을 말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선택된 자나 버림받은 자의 구별은 버림받은 자의 일시적 신앙생활에 못을 박았고, 저들을 위선자라고 칭하였다. 칼뱅은 버림받은 자와 선택된 자들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대답한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과 일시적으로 믿음이 주어진 자들 사이에 상당한 유사함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확신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중생 시키시며(벧전 1:23), 그들 심령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양자(養子)의 은사(은혜)로 그들 속에 확고히 봉함하시며, 그것은 확고하고 분명한 것이다.¹⁵³⁾

버림받은 자들도 그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화목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혼동하고 분명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그와 같은 믿음이나 중생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위선의 가리개 아래서, 그들은 그들과 공통의 믿음의 원칙을 갖는 것 같다. 이러한 정도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에 조명을 하신다는 것과 그

145) *Institutes*, IV.i.4.

146) *Ibid.*, IV.ii.8.

147) *Ibid.*, III.ii.11.

148) *Ibid.*, III.ii.12.

149) *Ibid.*, III.ii.15-16.

150) *Ibid.*, III.iii.21.

151) *Ibid.*, III.iii.1.

152) *Ibid.*, II.v.19.

153) *Ibid.*, III.ii.11.

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한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증거와 구별한다는 확증과 버림받은 자들은 결단코 충분한 결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¹⁵⁴⁾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버림받은 자들도 선택된 자들과 같이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며, 위선적이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보편적 지식에 대한 조명하심(일반계시)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으나, 오직 선택된 자에게만 성령님께서 구원의 확증과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들은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면 타락하고 말 것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인간의 이성이나 자유의지는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人) 본위 신앙이므로 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철저한 신(神) 본위 신앙을 주장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칼뱅의 조명론은 구원하는 믿음을 이원화시키는 모순을 낳았다. 구원하는 믿음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신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동의)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하신 말씀 속에 있다고 볼 때, 인간 이성에 의한 자율적 선택에 의한 불완전한 믿음과 성령님의 조명에 의한 완전한 믿음으로 이분화 시킬 수 없다.

신자가 믿다가 타락하기까지는 선택된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고, 또 그가 탕아와 같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선택된 자의 규정을 정할 수 없고, 신앙의 결과로써만 알 수 있다고 볼 때, 칼뱅의 조명론은 결과론에 근거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칼뱅의 조명론에서 제시된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마태복음 10장 19-20절의 말씀들은 사도들에게 국한된 말씀들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확대된 약속으로 볼 수 없다. 만일 이 말씀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결코 교리적 논란으로 다투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칼뱅의 제한 구속이나 성도의 견인은 구원론에 의한 필연적 결과라기보다는 결과론에 의한 귀결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인간의 선택과 유기는 인간이 범한 죄에 근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행사에 근거한 신권을 옹호한다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겸손한 신앙고백에서 나온다고 할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간을 피조물과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성령님을 임마누엘로, 그리고 인간을 피조물로 고백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의 절대주권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혼돈과 흑암의 세상을 살면서도 빛과 질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으며, 죽음의 세계에 살면서도 부활의 삶을 맛볼 수 있으며, 하나님

154) *Ibid.*

의 부재의 현실과 하나님의 침묵의 현실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삶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명한 역사의식과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이 신앙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재창조의 영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을 죄인과 피조물로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자기를 만드신 분에게 예배의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된다. 인간이 피조물이란 말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부족한 존재이며,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칼뱅의 신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이고 결정론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의 책임성과 재창조의 정신이 오히려 약화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요한 칼뱅은 완전타락을 믿으면서도 부패와 죄성을 구분치 않았으며, 구원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개념으로 생각함으로써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성경이라도 진정한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선택된 자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은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고집스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모든 신자들은 칼뱅적인 신앙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회 내에서의 신앙교육에 중요한 강점을 지닌다.

다른 한편에서 칼뱅의 인간 본질론은 선택과 유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결단의 보류와 방탕의 길을 걷게 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잘 믿던 자라도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고의적인 타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또 신앙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자칫 전도의 대상을 버림받은 자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1-11장에서 논증한 복음의 풍성함과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그 오랜 자비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할까를 심도 있게 논증하였다.

우주에 단 한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되신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시고, 평등하신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으로 판단하시고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신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없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 집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렸듯이 다만 기다리실 뿐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맏아들만이 아니라, 탕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만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못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일등만이 아니라, 꼴찌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만

이 아니라, 병든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것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로마서 이야기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오랜 자비에 관한 논증이 로마서의 내용이다.

오랜 주님의 자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길을 찾았다. 흑암에 앉은 백성,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는 무리, 바람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 같은 민초, 폭풍만난 제자, 소경, 앓은뱅이, 문둥병자, 다섯 남편가진 여인, 38년 된 병자, 혈류증을 앓던 여인 등, 앞 못 보고, 듣지 못하며, 걷지 못하고, 상하고 헤지고 찢긴 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내보였고, 주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값도 없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만으로 이 주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주님의 자비를 우리 모두가 입었고,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바울은 주님의 그 오랜 자비를 입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 권하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5. 신약성경의 구원론(스톤-캠벨운동권의 구원론)

신약성경에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序程) 곧 몇 가지 단계들이 들어나 있다. 그 단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칭의(의롭다하심)와 중생(거듭남, 초기성화)이 이뤄지는 단계들이다. 이후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내주 동거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 필자의 스승인 잭 코츠렐(Jack Cottrell, 전 신시내티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박사는 침례를 받는 단계에서 “은총의 이중치유를 받는다. 이중 치유란 흔히 죄 용서를 받는 칭의(의롭다하심)와 성령의 선물로 불리는 중생(거듭남)을 말한다.” 고 하였다.¹⁵⁵⁾ 또 코츠렐 박사는 이 단계들을 “구원하는 은총을 받고 간직하기 위한 조건들” 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환원운동 신학에서 이 단계들을 “구원하는 은총을 받기 위한 조건들” 로 또 성화를 “구원의 은총을 간직하기 위한 조건” 으로 말해온 것에 대한 수정이다.¹⁵⁶⁾ 코츠렐 박사는 “전통적인 환원운동신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있지 않고, 구원이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있다... 문제는 우리가 성화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를 이행하는가가 결국 자신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가, 혹은 상실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고 하면서 침례를 받고 의롭다하심과 거듭남을 받

155) <성서의 은총론>, 300-301; Jack Cottrell, *13 Lessons on Grace*(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9), 57-59; Jack Cottrell, *His Truth*(Cincinnati, Ohio: The Standard Publishing Co.1980), 69-75. 필자는 1980년대 전반기에 만 4년에 걸쳐 잭 코츠렐 박사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친 전 과목을 수강한바가 있다.

156) <성서의 은총론>, 292.

왔다고 할지라도, 침례는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므로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에서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이 유지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전통적인 환원운동신학에 깔린 보편적 사고였으며, 이 전통적인 환원운동신학에 따르면, “침례는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 같은 조건의 어느 것도 침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침례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신앙을 통해 의로운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우리는 그 신앙에 의해서 100퍼센트 의롭게 남아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선한 조건’을 가졌는지를 놓고 의심과 염려로 고민할 필요 없이 성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⁵⁷⁾ 코츠렐 박사의 주장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정도나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선물”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엡 2:8) “침례로”(골 2:12) 받은 구원을 유지시키거나 상실시키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선물)로 주신 구원의 목적으로써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께 빛진 자의 감사의 열매로써 상급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1) 구원에 이르는 단계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체험의 과정을 적고 있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도행전 2장 37-38절, 주후 30년 5월 28일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8장 5-13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믿고, 다 침례를 받았다. 8장 26-40절,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다. 9장 1-18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10장 1-48절,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다. 16장 12-15절, 바울 일행의 유럽 선교 때에 빌립보에서 몇몇 여성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다. 16장 25-34절,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던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다. 18장 8절, 회당장 그리스보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과정을 말하고 있다.

구원은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탄 금메달에 비교될 수 있다. 올림픽에서 크게 부각되는 것은 금메달이다.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에게는 명예와 포상금이 주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메달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금메달을 따기까지

157) <성서의 은총론>, 301-305.

의 힘들었던 훈련과정은 생각지 않는다. 대개의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말하지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운동선수나 코치나 감독과 같은 몇 사람에게 불과하다. 구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구원이란 결과만을 중요시하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믿으면 됐지, 무슨 놈의 과정이나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다고 해서 메달을 따기까지의 뼈를 깎는 훈련과정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란 메달을 이미 땀다할지라도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메달이 값지지만, 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한 것처럼,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이다.

(1)복음을 듣고

첫째, 성경은 ‘복음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한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고, 수정되고, 10개월 정도 태아로 자라고, 양수를 터뜨리면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는 과정을 거친다. 젊은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기까지에도 만남이 있고, 사귀어지고, 사귀어 신뢰로 바뀐 후에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이와 같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나 남남으로 태어나 부부로 맺어지는 과정에서도 첫걸음은 언제나 만남이다. 만남이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도 복음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다.

둘째,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신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레미야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3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셋째, 성경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주 모일 것을 권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예수님을 믿고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참으로 많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

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 환자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혼구원을 받는 것이나 병이 낫고 건강하여 지는 것이나 범사에 형통한 축복이 모두 구원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뜻 속에는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요 육체의 건강과 행복도 포함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3)죄를 회개하고

성경은 회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4)믿음을 고백하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증언하고 있다. 로마서 10장 9-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5) 침례를 받고

침례에 관한 성경말씀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로마서 6장 3-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받는, 이 다섯 가지 과정은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중간에 어느 것 하나가 빠져도 좋고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다섯 가지 과정은 구원의 열차를 달리게 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부품이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기차는 달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얻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과정을 밟아야 한다.

2) 구원을 이루는 요소들

신약성경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뿐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근원(근거), 수단, 시간, 목적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에베소서 2장 8-10절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는 구원의 근원과 구원의 수단을 말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는 구원의 목적을 말한 것이다. 또 골로새서 2장 12에서 “너희가 침례로(in baptism)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through faith)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는 구원의 시간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의 근원이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통로이자 출발선이며, 침례는 구원(중생, 영적 부활)이 이뤄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며, 구원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열매이다.

구원에 대한 개념은 근본적으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르다.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의미는 내 나라, 내 조국에서의 안식, 또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영토인 가나안땅의 영원한 존속과 번영을 뜻한다. 그 나라와 땅에 대한 희망을 아브라함이 처음 가졌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희망이 성취되었다. 그 나라와 땅의 존속은 하나님의 ‘헤세드’ (chesed, 은혜, 인자)에 의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 곧 율법(토라)의 준수로 말미암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헤세드’ 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땅의 근원이요, 율법준수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땅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수단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아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나라와 땅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곧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는 근원이요, 믿음은 그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아 그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안식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유대교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게다가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구원은 자력이나 여타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후 광야에서 성막시대를 열었다. 광야시대는 히브리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가나안땅을 바라보고 행군하는 기간이었다. 히브리인들이 양의 피를 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죽음을 피한 첫 유월절 날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그들이 희망한 구원의 시작이었지 성취는 아니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했고,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샘에서 물을 마셔야했다. 히브리인들은 첫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계명들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여전히 가나안땅을 향하여 행군하는 자들이었다. 떠돌이와 노예로서 히브리인들이 그토록 희망했던 구원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땅을 정복한 후에 비로소 성취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와 그 땅은 늘 불안한 상태였다.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나라와 땅을 존속시키는 열쇠였기 때문에 이미 광야시대 때부터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지 못했던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지 못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다. 바벨론과 땅의 음녀들(계 17:5)로 묘사된 죄악 세상을 탈출하여 침례라는 홍해를 건너 교회라는 광야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서 행군하는 순례자들이다. 만나와 반식의 샘플로 묘사된 주의 만찬을 매주일 예배 때마다 먹고 마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한 후에 침례(홍해를 건너 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천성을 향하여 행군하는 자들이다. 천성을 향하여 행군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끈질긴 인내와 신실한 믿음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구원의 근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는 이 짧은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담겨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이 세 마디 말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다. 특히 “은혜를 인하여” 와 “하나님의 선물,” 이 두 마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설명하는 용어들이다.

성경은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모든 법을 완전히 지켜 그 공로의 대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첫째 방법은 자력구원이 되겠고, 둘째 방법은 타력구원이 되겠다. 자력구원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사는 것이고, 타력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자력구원은 전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수련으로 남의 도움 없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타력구원은 자기 노력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력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있고, 타력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데, 인간은 불완전하고 거룩치 못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하시다’ 또는 ‘완전하시다’ 에 있다. 그러나 피조물의 특징은 ‘부족하다’ 또는 ‘죄인이다’ 에 있다. 하나님은 자기 노

력 없이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데에 비해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완전성과 거룩성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자력점수는 언제나 백 점 만점이다. 그러나 피조물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완벽한 점수에 도달할 재간이 없다. 처음부터 그런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일찍부터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도록 가르쳐 왔다.

하나님은 정의로 꾸중을 일삼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언제나 감싸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가 그 분을 찾아 백방으로 노력했을 때 그 분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푸근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그 분이 만나진다. 어려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진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한 노력과 자구책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은 아주 쉽고 값이 없고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그분을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력구원은 불가능하다.

자력구원은 이론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길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막힌 길이 되고 말았다고 로마서는 말한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피력했다. 첫째, 이방인들이 여러 형태의 신들을 섬기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둘째,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도덕군자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셋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넷째, 모든 인간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처럼 바울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구원을 위한 모든 행위들은 무용하다고 말한다. 모든 피조물은 죄인이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고 하였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고 말한다.

(2)구원의 수단(통로)

믿음에는 네 가지가 있다. ‘구원하는 믿음,’ ‘순종의 믿음,’ ‘은사의 믿음’

그리고 ‘교리의 믿음’이 있다.

첫째, ‘구원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머리로써 냉철하게 믿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 혹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지는 믿음은 주관적 신앙이고, 머리로써 냉철하게 믿어지는 믿음은 객관적 신앙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주관적 신앙과 객관적 신앙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이 구원하는 믿음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믿음이다.

사람들은 믿음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드리는 감성적인 신앙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믿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로 믿고 받아드리는 이성적인 신앙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주정적인 신앙에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 때문에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질적인 성장이 크게 미흡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성적인 신앙 곧 머리로써 냉철하게 믿는 객관적인 신앙에는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면이 있다. 무엇을 얼마큼 어느 선까지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할 건전한 교리의 믿음과 어떻게 구분 지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로마서 10장 9절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은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머리로써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생명을 살리시는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성으로 창조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심을”(롬 4:17)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이나 사라가 신체적으로 너무 늙어서 자손을 가질 수 없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죽었던 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분에게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은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롬 4:18-22).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믿음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롬 4:24) 것이라고 말한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이를 기이히 여겨 물려든 군중을 향하여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행한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선포였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 2:23-24)고 베드로는 말하였

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졌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다.

둘째, ‘순종의 믿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나 그 결과를 말한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생활을 말한다.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순종의 믿음 또는 성화의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믿음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신앙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성화의 믿음이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순종의 믿음이 나쁘면 신앙인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만다. 이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셋째, ‘은사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특정인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남을 위한 믿음이다(고전 12:9; 13:2). 은사란 그 특성상 구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때에 주시는 일시적인 선물이다. 따라서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나 순종의 믿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은 아니다.

넷째, ‘교리의 믿음’은 앞에서 언급한 구원하는 믿음 속에 있는 머리로서 냉철하게 이루어지는 동의의 믿음을 좀 더 구체화시킨 믿음의 내용을 말한다. 이 동의의 믿음은 신앙의 내용 또는 신앙고백의 내용 또는 지식의 믿음을 말한다. 건전한 그리스도교 교리가 여기에 속한다. 삼위일체 신앙고백서들인 니케아 신조나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고백서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교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영향을 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때때로 이 믿음은 신앙인에게 오히려 울무에 걸리게 하는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까지 본질로 착각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단이기주의에 빠뜨리고 남을 쉽게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교만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단에 빠져드는 이유도 교리의 믿음에 치우친 때문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분리대이고, ‘순종의 믿음’은 알곡과 컄짚을 분리하듯 등급을 매기는 저울이고, ‘은사의 믿음’은 그릇의 크기를 재는 잣대이고, ‘교리의 믿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친교의 울타리(test of fellowship)와 같은 것이다. 울타리가 너무 넓으면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울타리가 너무 좁으면 들어가야 할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교리의 믿음이 가질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구원에 본질이 되는 부분은 통일하고, 본질이 아닌 부분은 각자의 신앙양심에 맡기며,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한다는 대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같은 믿음들 가운데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서는 유일한 수단이고 통로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사람(죄인)에게 어떻게 생기는가?

첫째,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님의 선(先)은혜(prevenient grace) 곧 죄인을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고 신앙을 고백케 하시며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하는 결심이 생기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회심이전의 사역에서 생긴다. 이 과정은 민족성별노소 빈부귀천선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 은혜는 칼뱅이 주장한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제한적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거나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이며 그 은혜를 입고 못 입고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간의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제한하시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신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바가 있듯이, 하나님의 의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결정하시는 절대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이 결정하는 훈계(계명)의지도 있으며, 사람이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락의지도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이나 사람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것이나 요나나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하신 것이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고 하신 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개의 모든 계명들, 곧 ‘~하라’는 248개의 계명들과 ‘~하지 말라’는 365개의 계명들은 언약 법들로서 지키면 상주시고 어기면 벌주시겠다는 조건법들이다. 이 계명들을 지키고 못 지키고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그 결정권을 맡기신 것들이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허락의지 속에 이 땅에 존재하는 죄악들이 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한 시간(kairos)이 찰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신다.

둘째,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셋째,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생긴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고 했다.

넷째, ‘구원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생긴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다.

다섯째,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생긴다. 남녀가 결혼식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 또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

을 것이다.“고 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말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인간이 살길은 오직 한 길(one way)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는 길뿐이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뿐이다. 믿음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영원히 살 수 없다.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갈등과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 받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빚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환자가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3)구원의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다.’ ‘믿음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시간 혹은 구원이 이뤄지는 시간은 언제쯤인가? 믿음을 갖는 순간인가? 믿음이 어느 정도 발전된 다음인가? 침례를 받을 때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받을 때인가?

성경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침례를 받을 때이다.’ 고 분명히 말한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로마서 6장 3-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

았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through the water of rebirth, NRSV, NASB)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상의 말씀들은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혀 주고 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말씀들을 근거로 ‘침례를 받는 시간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일치된다. 침례를 받는 시간과 죄 사함이 선포되는 시간이 일치된다. 침례를 받는 시간과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일치된다. 침례를 받는 시간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마음의 성전에 내주 하시는 시간과도 일치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다. 이쯤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침례가 구원을 받는 원천이거나 수단이 아니라 시간이란 점이다. 우리는 이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다.’ ‘믿음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침례는 구원을 받는 근원도 수단도 아니다. 침례가 믿음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의 수단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침례가 구원의 시간과 관계된다는 점이다.

침례가 구원의 시간과 관련된다는 이런 교리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큼 설명이 가능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잘못 이해되어져서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과연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한가?

19세기 초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은 침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글을 발표했고 맞장 토론회도 여러 차례 가졌다. 캠벨은 침례를 논할 때 항상 세 가지 주제 곧 침례를 베푸는 방법(Action), 대상(Subject), 목적(Design)으로 나뉘어서 설명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대상과 방법과 목적이 존중될 때, 한 침례 안에서 일치가 가능하다”¹⁵⁸⁾고 하였고,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고안(design)을 위하고, 어떤 행위(action)의 대상이 될 어떤 인물(character)을 명령하셨다”¹⁵⁹⁾고 믿었다.

첫째, 침례의 방법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는 행하여진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침수침례가 사도교회의 전통이다.¹⁶⁰⁾

둘째,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복음을 듣고, 예

158) Alexander Campbell, *Christian Baptism with its Antecedent and Consequents*(Nashville: Gospel Advocate, 1951), 188.

159) Alexander Campbell, *The Christian System*(Nashville: Gospel Advocate, 1974), 39.

160) *Christian Baptism*, 85, 90, 101, 105; *The Christian System*, 41. 참고: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1993), 55-58; 이형우 역주, <히브리투스 사도 전승>(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127-141.

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또 그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이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고,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셋째, 침례를 받는 목적과 그 축복이다. 침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지상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시간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상교회의 시민이 되는 시간이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새 언약,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엄숙한 언약식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시민권 획득의 시간을 말한다. 또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는 시간이다. 침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로 거듭나며, 성령님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성별 민족 사회적 신분의 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회복되는 엄숙한 그리스도교 예식이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님을 모시게 된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신다. 또 침례를 통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미리 맛보며,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보증 받는다. 이런 뜻에서 침례를 받는 시간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시작이며,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부단히 자기 변혁을 꾀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 시간이다.

침례와 성령침례는 하나라고 성경은 말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5절은 침례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한 몸이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은 침례 받은 자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침례 받은 자를 일컬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고전 12:13)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물침례와 성령침례가 한 가지임을 말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침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말할 수가 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침례는 죄 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천년 동안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의식(ordinance)이다.¹⁶¹⁾ 물론 침례 때문에 죄 사함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는

161) Alexander Campbell, *Christian Baptist*(1828): reprint ed.,(Nashville: Gospel Advocate, 1955), 128; *Christian Baptist*(April 1828), 222; *Christian Baptist*(June 1828), 256; Alexander Campbell, *Millennial Harbinger*(1849): reprint.,(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n.d.), 611.

것은 아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선행을 위해서, 침례 가운데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중생의 새롭게 하심과 씻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¹⁶²⁾ 침례의 영향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나타난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요, 획득 원인으로써도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하나의 도구나 합목적 원인으로써 일 뿐이다.”¹⁶³⁾ 캠벨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죄 은총의 수단이요, 침례는 단순히 사죄에 대한 확신의 수단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칭의의 수단이요, 침례의 목적은 “사죄 즉 용서의 서약,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 부활의 확신”이다.¹⁶⁴⁾ 침례는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나타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 볼 때는 엄숙한 인침과 서약과 공식적인 확신이다.¹⁶⁵⁾ 캠벨은 이점을 다음의 글에서 더욱 명확히 하였다.

효능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된 믿음 가운데 있다. 따라서 침례를 통해서 받는 죄 사함은 물이나 침수 때문이 아니라, 피침례자가 고백하고 소유한 믿음 때문이다. 침례는 그 자체가 죄 사함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한 표지요, 서약이다. 물이나 침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침례는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우리의 관심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죄 사함의 인침일 뿐이다.¹⁶⁶⁾

이 언급이 있기 20년 전 캠벨은 이미 믿음의 중요성과 구원의 수단 또는 매체로써의 믿음을 피력한 바 있고, “믿음은 진실로 죄 사함을 구할 수 있는 근원적 매체이다”¹⁶⁷⁾고 했다. 때문에 침례는 믿음으로부터 그 모든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고, 침례는 믿음의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고백이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서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¹⁶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믿음, 침례는 상관적이다. 그래서 캠벨은 “칭의, 성화, 양자됨이... 복음적으로 주 예수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침례 속에서 나타난 믿음과 연결된다.”¹⁶⁹⁾고 했다.

마르틴 루터도 성례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수세례라는 표징 또는 성례(a sign or sacrament)를 통해서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⁷⁰⁾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은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며 성령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리고 침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출발점이다.

162) *Christian Baptist*(July 1828), 129; *Christian Baptist*(April 1828), 222; *Christian Baptist*(July 1828), 254-255.

163) *Christian Baptism*, 205.

164) *Millennial Harbinger*(1849), 62.

165) *Christian Baptism*, 205.

166) *Millennial Harbinger*(November 1849), 611.

167) *Christian Baptist*(June 1828), 255.

168) *Christian Baptism*, 221.

169) *Christian Baptism*, 229.

170) John Dillenberger, “Pagan Servitude of the Church,” 291-314.

<리마문서>(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에서도 믿음과 침례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침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응답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다(엡 4:13). 모든 교회들은 침례 안에서 구체화되고 착수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171)고 언급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알렉산더 캠벨도 “침례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도, 도덕적 의무도, 도덕적 의로움도 아니며, 단순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그 분의 손에, 그 분의 인도하심 아래 맡기는 것이다” 172)고 하였다. 때문에 믿음 없는 침례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가치하다. 진실로 침례는 믿음에 대한 실질적이며 상징적인 고백이다. 이는 루터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떠나 성례의 효력을 구하는 것은 헛된 수고라고 한 말과 상통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캠벨에게 있어서 죄 사함은 침례의 결과로 따라오는 다른 모든 축복들에 대한 “주도적이며 도입적인 축복이다” 173) 때문에 침례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칭의(의롭다하심)와 중생(거듭남, 초기성화), 성령님으로의 기름부음과 약속, 인침과 보증, 양자권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다. <리마문서>에서도 이점이 강조되고 있다. 174)

성경은 침례를 성령님께서 중생의 사역을 일으키시는 시간 혹은 장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침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와 함께 장사되며, 그와 함께 일어나고, 죄 사함을 받으며, 새 생명으로 입문하며, 성령을 받으며, 주안에서 기쁨의 삶을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침례 안에서’ (in baptism, 골 2:12)라는 어휘이다. 이 말은 ‘침례 가운데서’ 즉 ‘침례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축복들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캠벨은 침례가 “인간의 영혼에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며, 죄 사함은 물론 하나님의 가족에 입적되어 누리는 모든 축복들을 받는 즉각적인 시간이며 매개체이다” 175)고 하였다.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흥강사였던 월터 스코트(Walter Scott)도 이미 1817년 침례를 죄 사함과 성령님을 선물로 심지어는 영생을 얻는 장소로 설교하였고, 캠벨도 <그리스도인 침례>지에서 침례를 통해서 받는 모든 축복들 곧 죄 사함, 칭의, 화목, 성화, 구속, 새 생명, 성령의 내주하심 등을 논하였다. 또 캠벨은 하나님의 은총을 근원적이고 역동적인 원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을 위한 공로 원인, 믿음을 구원을 받는 도구적 원인, 침례를 모든 영적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캠벨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요소들 곧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171) World Council of Churches,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Geneva, 1982), s.v. “Baptism no. 8.”

172) *Christian Baptism*, 229.

173) *Christian Baptism*, 205.

174)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s.v. “Baptism no. 5.”

175) *Christian Baptist*(July 1828), 254-255.

으로 말미암아,” “침례로,” “선한 일을 위하여” 를 그대로 설명한 것이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정식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일곱 가지 성례(sacraments)가 있지만, 그리스도교(개신교)에는 오직 두 가지 의식(ordinances) 곧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을 뿐인데, 그 가운데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의식이 주의 만찬이다.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침례를 받아야 주어진다.

그리스도교(개신교) 안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다.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다. 이러한 직책은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책을 뽑는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침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침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학습을 받고 있는 예비회원이기 때문에 투표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다. 학습이 끝나는 대로 침례를 받고 정식회원이 된다. 그 때에 비로소 투표권이 주어지고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고, 또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교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을 말한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 교회와 낙원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약속과 인침(도장 찍음)과 보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며,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곳이지만,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고 맛보아 진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인의 자격 곧 하나님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침례와 관련해서 살펴본 것이다.

침례식은 그리스도님과 신자가 혼인을 서약하는 시간이다. 결혼하는 커플이 혼인 서약을 하듯이 침례를 받는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서 서약을 한다. 말하자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이다.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가 혼인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만남과 사귀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시간들 즉 남녀가 서로 사랑했던 시간들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부부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들을 연인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혼례식을 마친 후에는 당당한 부부사이가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식도 신자가 그리스도님과 사귀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에게 평생을 맡기기로 결단한 다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룩한 의식인 것이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쌍방의 서약이고, 주례자의 성혼

선포이듯이 침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의 신앙고백이고 주례자이신 하나님의 칭의 선포이고 성령님의 초기성화(씻음과 새롭게 하심)이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임신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혹은 세 명이든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히 생명체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름도 없고, 생년월일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인구 조사 때에 국민으로 카운트도 되지 않는다. 임신부의 몸에서 양수를 터뜨리고 나와야 비로소 시민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침례식은 학습교인이 정식교인이 되는 시간이며,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시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된다는 의미이다.

초신자가 침례를 받기 전에 받는 학습교육이나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식을 하기 전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출산 전 태아의 성장과정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씨 뿌림이 없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결실이 있기까지의 성장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성장과정이 있음으로 결국 결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장과정보다는 결실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해한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을 갖게 된 동기나 과정을 기억하기보다는 침례식 날짜를 쉽게 기억하게 되는데 잊어버리더라도 침례증서가 남아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예 중에는 처음 만나 사귄 날을 챙겨서 지키기도 하지만, 결혼한 부부는 처음 만나 사귄 때의 일을 기념하기보다는 결혼한 날짜를 기념일로 지킨다. 사람마다 출생일을 기억했다가 생일잔치를 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한다.

죄인의 상태를 편두통환자로 생각해보자. 이 환자는 자기의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펜잘이나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 곧 바로 편두통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있다. 그래서 약국에 나가 진통제를 산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제 곧 낫겠지? 진통제를 샀으니 말이야.” 이 환자의 편두통이 이 환자의 믿음 때문에 사라지는가? 아니다. 적어도 물과 함께 손에 있는 진통제를 먹기까지는 말이다. 이 약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의 능력이다.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나 침례 때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요, 침례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작용하는 바로 그 시간인 것이다.

침례는 죄 사함을 받고, 새로 거듭나며, 성령님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옷입는 시간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침례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침례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예식이며 죄와 싸우는 십자군에 입단하는 시간이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만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죄와 부단히 싸워야 한다. 마르틴 루터는 침례를 순간적인 구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영구적인 개혁과 변혁의 문제로 보았다. 왜냐하면, 신자가 살아 있는 한 부단히 침례가 의미하는 바를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죄된 모든 것을 부단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부단히 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4)구원의 목적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고 했고, 디모테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고 하였으며, 디모테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 하였다. 그밖에도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교회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선한 일을 사모” 하는 자(딤후 3:10,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딤후 3:7),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딤후 5:10), 예수님처럼 “선한 증언”을 하는 자(딤후 6:13)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목적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 하였고, 목회서신들에서 디모테와 디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다.

디모테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테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살아 있는 나무에는 봄이 찾아오지만, 죽어 있는 나무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는다. 죽어 있는 나무는 계절에 관계없이 싹을 내지 않고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나무의 상태를 보고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혹은 죽어 있는 나무인지를 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선행의 싹이 없고 꽃이 없고 열매가 없다.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살아 있기 때문에 선행의 싹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평가한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활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다.

불신자일 때에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롬 10:9),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확신으로 믿음을 키워 가야 한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청산유수 같은 기도솜씨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뽐낼 수 있는가? 많은 액수의 헌금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뽐낼 수 있는가? 잦은 금식과 기도회의 참석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뽐낼 수 있는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고 있다(눅 18:10-14). 바리새인들은 예복을 즐겨 입고, 장터에서 인사 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즐기며,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리나 죄인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20:45-47, 참고: 사 58:1-7).

이같이 하나님은 행함이 없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통해서 드리는 산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신앙인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믿음이 나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4-26절의 말씀이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봄이 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계절은 아니다. 봄은 나무에게 필요한 출발점이고, 여름은 가을을 준비하는 성숙기이며, 가을은 열매를 맺는 결실기이다. 따라서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봄의 생동과 여름의 풍성함과 가을의 열매이다. 열매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지라도 겨울, 봄, 여름은 가을에 맺히는 열매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셨다.

봄에 피는 목련과 개나리, 진달래와 벚꽃, 매화와 라일락 등의 꽃은 아름답다. 신자에게 있어서 중생 또는 거듭남의 체험은 얼었던 대지와 두껍고 딱딱한 외피를 뚫고 나오는 새싹과 더불어 죽은 것 같았던 목련과 개나리, 진달래와 벚나무, 매화와 라일락에서 눈부시게 피는 꽃의 감동과 같다. 그러나 그것은 봄 한철에 불과하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서 봄의 감동은 식어져 버리고 잊혀 버린다. 봄에 느꼈던

감동이 여름에 찾아오는 신록의 풍성함에 압도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록의 풍성함도 여름 한철에 불과하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여름의 감동은 식어져 버리고 잊혀 버린다. 한 나무의 진가는 찬바람이 불면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무마다 다가올 찬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의 수분을 빼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풍성했던 잎을 떨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잎이 떨어질수록 열매가 많은 나무는 사랑을 받게 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초라한 모습으로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나무를 싫어하셨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가에서 잎이 풍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에 관심을 보 이셨다. 그러나 잎사귀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 (마 21:19).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통해서도 열매 없는 나무를 책망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눅 13:6-7).

하나님은 행함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행동을 보인 믿음을 통해서 드리는 산 예배를 기뻐하신다.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삶 속에서 묻어나는 믿음이 나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7절은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고 하였다.

나무는 결국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20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고 하셨다.

갈라디아서 5장 16-2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쁜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한다. 나쁜 열매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과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이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 한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10절의 말씀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위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려면 신앙인다운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은 말하기를, 불신자들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롬 6:16)고 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고 충고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에게 종’ 또는 ‘하나님께 종’이란 말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성결의 생활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있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계신다. 구원과 함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늘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